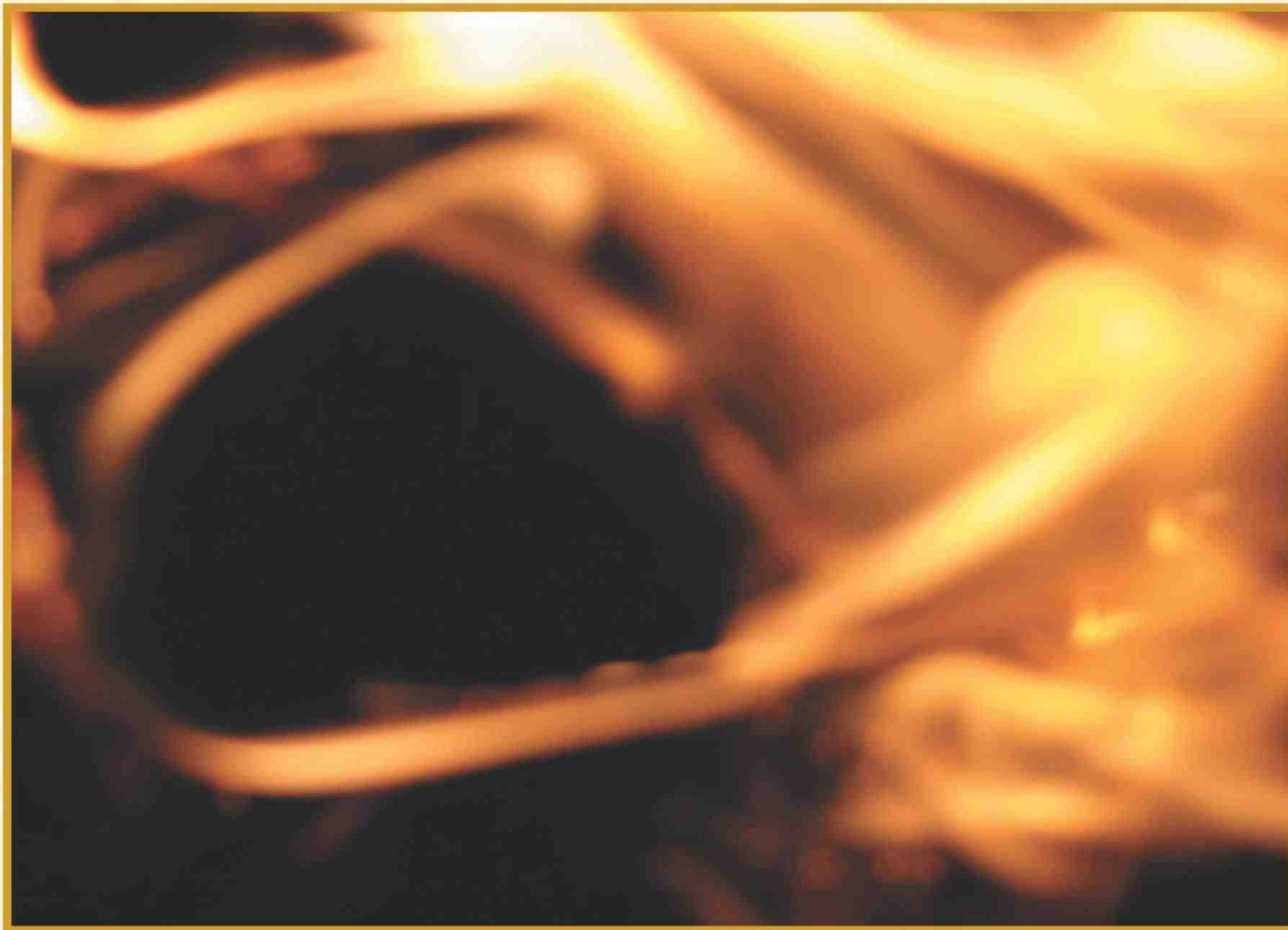


定慧社

불기 2552년 겨울 | 제38호



송광사 전통강원

조계의 물소리

겨울 빛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번뇌와 그리움으로
사람의 일생, 그 存在의 가치를 찾아 헤매어 보지만
겨울 세찬 바람에 사시나무 가지 떨듯
흔들거리며 일어나는 떡시루 증기마냥
이내 사라지는 마음의 여시 짓에
우리는 넋 놓고 흐느적거린다.
짧은 삶은 모래시계 아래 칸으로
쌓여지는 작은 모래 더미처럼
허탈감만 자라고,
흘러 내려버린 부재의 공간에 채워진
이 상념想念들!
또 다른 무거운 추를 마음에 더해갈 때
존재의 의미는 더욱 얼룩져
마음의 공적함을 차지할 공간의 여백들은 점점 버려가고,
더욱 두텁고 넓게 펼쳐져, 끝없어 보이는
형형색색의 미진, 번뇌들의 형색만이 점점 천연天然해져
이미 묻혀 버린 본래 마음 모습은 본 지 오래 되고.
짙은 회색 겨울 눈구름에 가려
희뿌연게 반사된 짙은 회색빛으로
어두운 방을 비추어, 눈부시어 눈 비빌라 치면.
두터운 상념들에 덮여 버린 마음으로
더 넓고 높은 창공의 맑은 햇빛은 몇 개일지 모르고.
하얀 수증기 차가운 겨울 허공중에 사라지듯
꺼져 가는 어둔 방, 희뿌연 한줄기 빛에
반짝이며 흘러 내려 줄어드는 모래시계 모래만을
못내 아쉬워 한다.

定慧社

불기 2552년 겨울호 | 통권 제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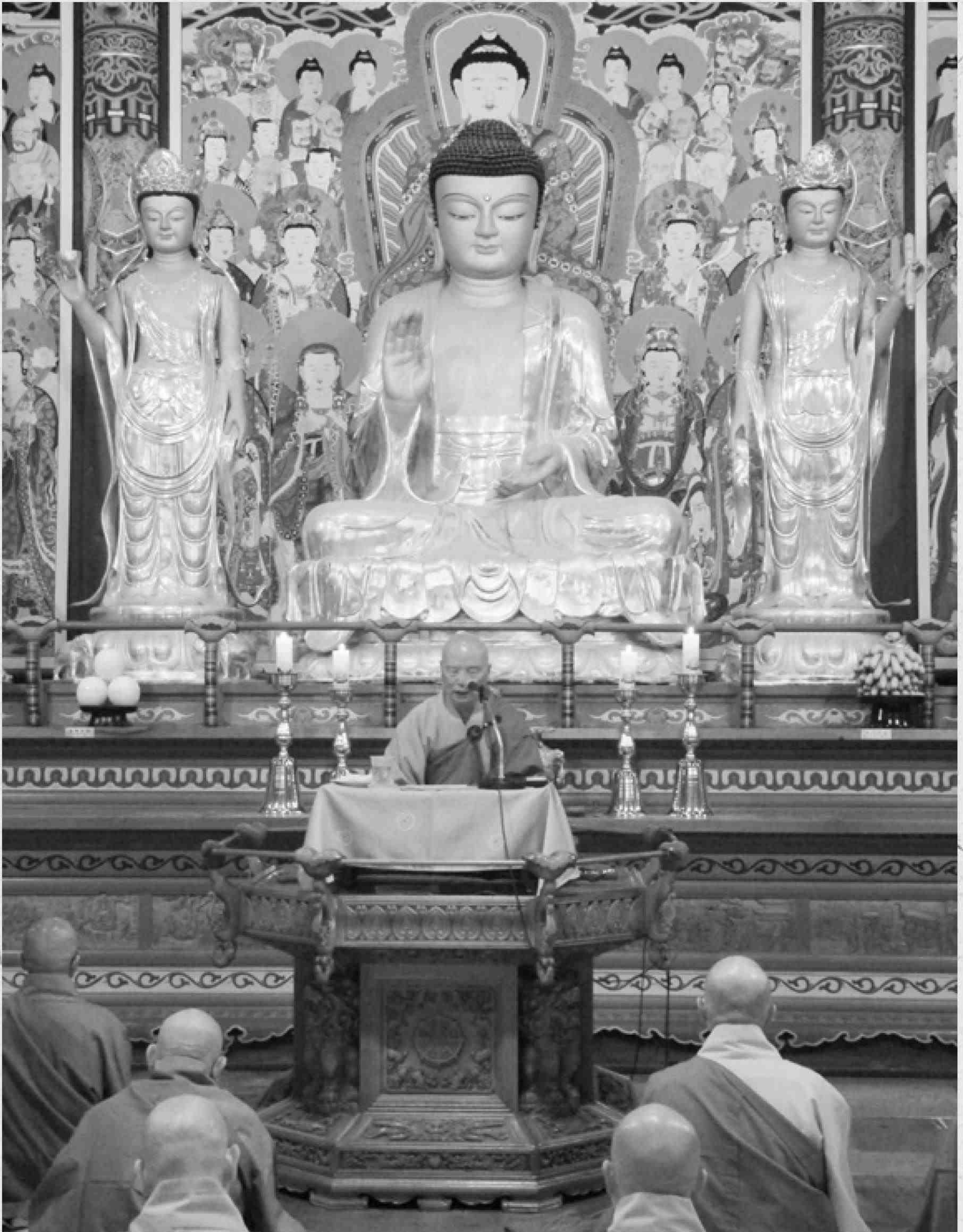
- 2 방장스님 법어
무자년 동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 4 학인논단
언어문자와 깨달음 | 도담
- 8 그런 길은 없다 | 베드로 시안
- 8 잡을 수 없는 새 | 시묘
- 9 초발심자의 눈물 | 보원
- 11 경전 한 구절
어디로 갈 것인가?
- 12 30대의 군생활 | 연각
- 14 산행 | 한운
- 15 방장스님을 기리며 | 정원
- 17 경전 한 구절
근본
- 17 철쭉꽃은 붉었던가? | 창연
- 18 기도 | 본연
- 19 출가1년 | 정목
- 20 그런 소리가 좋다 | 선화
- 21 취모검 | 도웅
- 22 정혜탐방
남국선원장 혜국스님
- 33 포토에세이
범성료 | 한운, 응진
- 34 나 아닌 것 같은 나와 나인 것 같은 나 | 회일
- 36 山 | 심범
- 40 포토에세이
만장 | 한운
- 41 반야용선 | 진관
- 43 경전 한 구절
물든 마음
- 44 학인기고
中道 | 도범
- 50 세 번째 겨울 | 향성
- 50 치문반 수행 | 송산
- 51 나는 POLICE | 연성
- 53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 54 대외 후원내역
- 55 강원신입방부
-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하사당 아궁이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일귀(강주)
편집인 | 보원(입승대행)
편집장 | 시현

발행일 | 불기 2553년(서기 2009) 2월 1일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 화 | 061) 755-5302
인 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방장스님 법어

무자년戊子年 동안거 결제 법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이번 철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법문을 산승山僧이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애상懸崖想이나 관문상慣聞想을 버리고 듣는다면 이익이익이 크리라 믿습니다.

財色名利如毒蛇하고 古佛古祖皆同說이라.

不捨三惡求解說하면 如載油盆入火中이라다.

재물財物과 여색女色과 명리名利가 독사毒蛇같다고 부처님과 조사祖師가 다 말씀하셨으니 이 세 가지 나쁜 허물을 버리지 않고 공부工夫하면 기름통을 머리에 이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절 짓는 일을 몹시 싫어했는데 상좌上佐가 찾아와서 저는 절을 지어도 시주施主를 상대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만 하겠습니다, 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울을 건너는데 발에 물을 안 묻힐 수 있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동안거冬安居 결제대중結制大衆은 이 세 가지 나쁜 일을 안 하리라 맹세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심어 놓았으니 내년 봄에 꽃이 피고 안 피는 것은 대중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결제 대중은 천리마千里馬에 채찍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장자拄杖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시다.) 定慧社



언어문자言語文字와 깨달음

도담 <18호>

양지바른 곳 매화는 한껏 꽃망울이 부풀어 있고, 꼬마새의 날개짓이 여유롭게 보여지니 봄인가 보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이라도 이 봄의 정경을 100%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냇물의 흐름이 한결같은 것이 없듯이 삼라만상이 무상無常하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즉 빈틈없이 변화하므로 어느 것 하나, 이것이라고 고정화 내지 실체實體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위의 봄 정경을 보더라도 언어문자로 실상實相을 사실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즉 문자로 표현된 것은 실상과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완전하지 않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과 역대조사 선지식 스님들께서는 眞如를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然相 또는 不可說 不可念,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세계라고 했다. 허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처님과 제대 선지식께서는 팔만사천 법문과 수많은 禪書를 후대에 남기셨으며 한결같이 나는 한마디 법문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어떻게 새겨 들어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일단 언어 문자부터 살펴보자. 생각을 글로 옮긴 것이 문자요, 말로 한 것이 언어이다.

언어 문자의 속성은

1. 부분으로써 전체를 나타낼 수 없다(장미꽃을 예로 들어 그 물기, 온기, 햇빛, 색깔 등 장미꽃의 온전한 모습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

2. 실상實相은 무상無常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언어문자를 쓰는 순간 실체화된다.
3. 고정화된다.
4. 분별심(‘나’와 ‘너’라는 식의 인식으로 소외감이 생긴다).
5. 구속(한정)력(예를 들어 책상은 앉아서 책 보는 도구로만 한정된다).
6. 복제적이다 - 실재의 장미꽃은 無常하여 없어질 수 있으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장미꽃은 현실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장미꽃이라는 개념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버리지 않는 이상 시간과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 똑같이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개념과 실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다. 그래서 언어문자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의 초를 이룬다. 실재 컵은 컵이라고 말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말인즉 컵이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출발은 言語寂滅, 즉 언어와 결합된 문제, 마음, 생각, 속성 등 그 업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다음, 實相은 어떠한가?

實相은 無常으로서 실체가 없는 無我, 空, 空寂靈知, 佛性 등으로 표현된다. 만약 실상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로 인해 막혀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상은 투명[空]하기에 일체변화를 낼 수가 있다. 공적영지인 실상은 인위적이거나 조작이 없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여의 본래 있는 그런 성질로 모자람도 없고 도움도 필요없는 無修無證 本來淸淨 완전무결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제일 큰 공덕을, 經을 受持讀誦하는 것으로써 菩提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言說은 有爲이고 깨달음은 無爲인데? 어떻게 有爲를 수행해서 無爲를 이룰 수가 있는가?

有爲든 無爲든 실체가 있다고 하면 깨닫기 어려울 것이나 모두 그 실체가 空하기에 가능하다. 바로 空卽是色이며 煩惱卽菩提이다. 서로 대립하지 않고 卽으로 해소되는 것은, 실체론적인 차별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실체론적인 평등관으로 보면 卽이 가능하다. 번뇌를 실체로 보지 않고 한 생각 돌이킬 수만 있다면 번뇌가 바로 보리로 변할 수 있다. 번뇌를 실체로 보면 영원한 번뇌일 것인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래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지혜도 없는 空한 것이 진리이다. 여기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차별심이 되고, 실제로 생각하는 중생심이 생겨난다.

無明이 왜 생기나?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은 실체화되는 사고방식이다(무명이 실제 있으니까, 무명의 원인도 있다는 사고

방식). 무명은 '실체화' 하는 사고방식에서 생긴다(그렇다면 무궁무진한 원인이 나타나게 된다 - 원인이 실체가 되고 그 실체의 원인 원인....). 무명 또한 실체가 아니며 원인이 없는 것이다. 번뇌가 있고 空寂靈知가 있다는 실체론적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누가 만든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을 내는 것이다. 부처님과 선지식께서는 이같은 중생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언어문자란 방편을 써서 언어문장의 속성이 소멸되는 팔만사천 법문과 수많은 선어록 등으로 침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언어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다. 손가락에 속지 말고 손가락 너머 달을 보라고, 당신들은 한결같이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眞理는 言說을 끊은 無爲일지라도 言說(부처님과 역대조사스님의 말씀)은 바로 無爲의 因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信心이 至極하면 有爲가 변해서 無爲가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 라고 했다.

信과 解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조스님의 『眞心直說』 '眞心正信' 에서는 “永明云 信而不解 增長無明 解而不信 增長邪見 故知信解 相兼得入道疾”라 하였다.

번역하면 “영명연수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기는 믿으나 알지 못하면 무명만 증장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샷된 견해만 증장한다. 고로 알라. 믿음과 앎이 서로 겸해야 도에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다.

이 때에 앎은 실천(行)을 동반해서 證得함이 있어야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된다.

修行法 가운데 하나인 간화선(看話禪)은 話頭로써 언어도단에 이르게 하여 화두마저 사라져 깨침에 들게 한다.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생각의 길이 갈 데까지 간, 가장 미세한 생각 의심인 화두 참구법도 疑團(의심덩어리)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선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곧 믿음으로써 疑團(화두)을 드는 것이다.

팔만사천 법문도 실체의 입장에서는 보는 중생에게는 번뇌가 되지만, 緣起와 空의 입장인 부처가 말하면 진리가 된다. 염불, 간경, 예불, 기도, 참회, 주력, 공양, 강의, 운력 등 일상사에서 말길(言路)과 생각의 길(心行處)이 끊긴 자리를 觀하는 회광반조(回光反照 : 언어문장, 相, 외부, 생각이 전의 것을 觀照함)는 분별심을 사라지게 해 깨달음에 이르는 데 필수이다. 모든 수행은 바로 '나'란 생각 '너'란 생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나'란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나'란 생각 때문에 '너'란 생각이 일어난다. 참선, 화두수행도 '나'란 생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忍辱行과 下心은 我相을 조복하는 데 좋은 수행법이다.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은 분별심과 아만심을 내지 않게 해준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나'란 생각을 내지 말고 참으라. 수행자가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함은 근본적으로, 중생의 입장('나'와 '너'란 입장)에서는 我相이 치성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나', '너'란 생각이 없고 동체대비(同體

大悲의 입장이기에 허물이 없다. 수행이 될수록 我相이 점점 없어지니까, 남에 대한 견해를 안 갖게 되고 오히려 자기 허물만 보이게 된다. 말이란 분별심이며, 默言은 분별심을 끊는 연습이며 깨달음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성숙될수록 나의 범위가 넓어진다. 불교의 나의 범위는 대상이 무한정이며 종교도 有無情도 초월하는 삼천대천세계가 나이다. 수행의 점점은 남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와 남을 동체대비로 보는가? 번뇌란 나와 남으로 갈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取와 有는 그 중 가장 치성한 번뇌이다.

우리 공부는 분별심을 없애려는 지혜공부이다. 탐진치貪嗔癡를 내지 말고 業力에 끌려가지 않으며, 無我行과 同體大悲로 自利卽利他人 無心平等인 올바른 行, 즉 中道을 行하다가 機緣[거의 깨달으려는 시절인연 : 촛불이나 빗장, 방棒이나 할囑 등이 계기가 됨을 만나면 實相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직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世間은 有의 입장으로 보는 가치관이지만 出世間은 空의 입장으로 보는 가치관이다.

日用事無別	일상사가 다를 것이 없나니
唯吾自偶諧	내가 스스로 하나가 될 뿐
頭頭非取捨	무엇이나 취사取捨 없으니
處處沒張乖	어디서건 어긋남이 없다
失紫誰爲号	고관을 누가 귀하다고 이르던가
丘山絶点埃	청산에는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것을
神通并妙用	신통묘용神通妙用이 무엇인가 하면
運水与搬柴	물을 길고 땔나무 나르는 일

- 방거사 -

祖師의 悟道頌도 경전의 확인에 불과하다.

말보다 行은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아는 도반스님들께 深히 恥하다. 定慧社

그런 길은 없다

베드로 시안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고갯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어둡고 험난한 이 세월이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잡을 수 없는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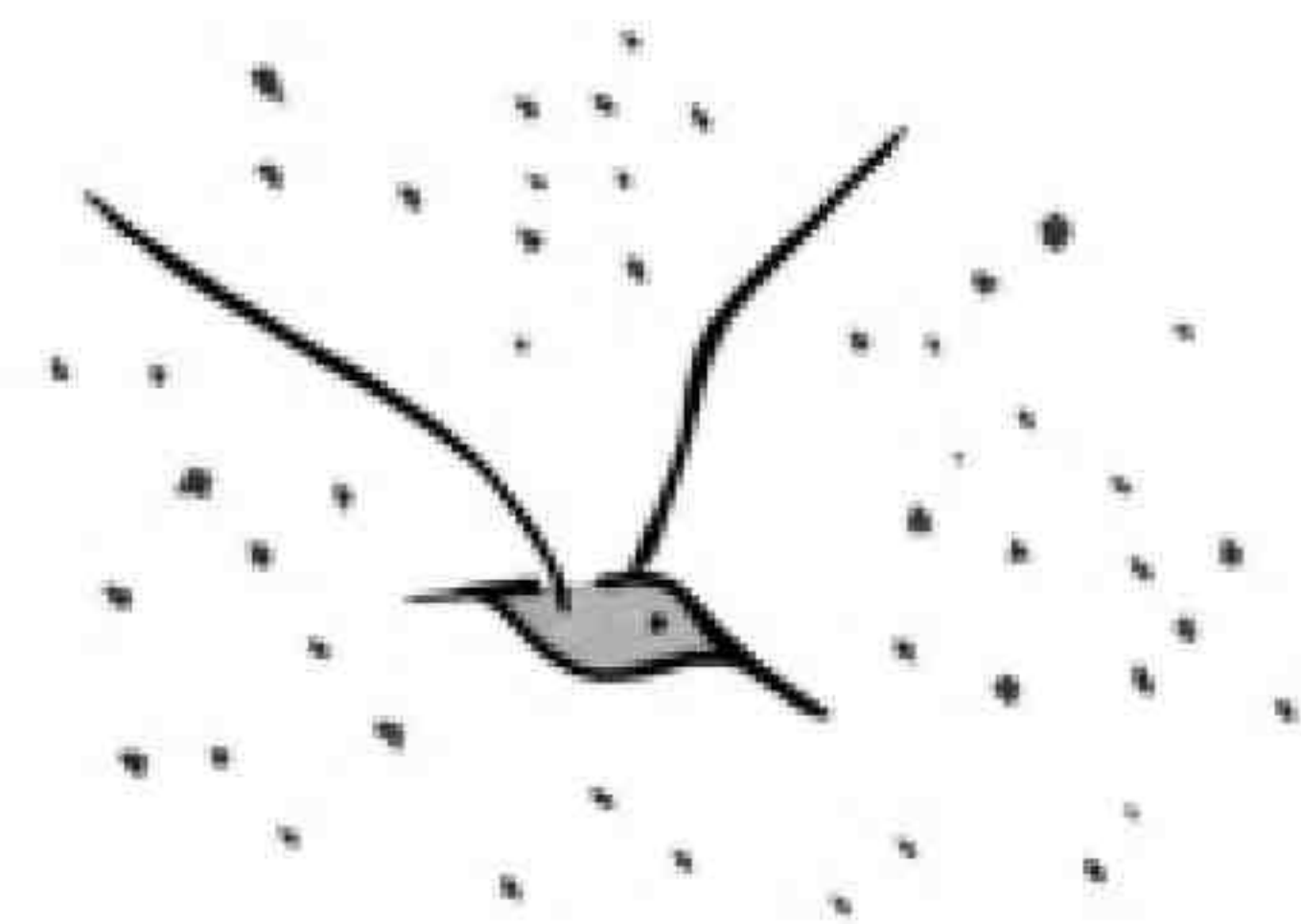
시묘是妙 | 치문

누가 깨 버렸을까

쓰레기 더미 밑에 산산 조각난 벽거울
누군가의 얼굴이 어슴푸레 보인다.
붙잡을 수 없는 새 쫓아
거울 속으로 수없이 들락거렸을...

거울이 나를 응시한다.
일그러진 얼굴들이 날 노려본다.
거울이 내 얼굴을 쫓고 있다.

누가 깨 버렸을까
거울 속을 빠져나간 새가
허공으로 날아간다. 定慧社



초발심자의 눈물

보원 | <2호>



그녀의 무덤에 다녀왔다.

2535년 5월 25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그녀를 묻은지 3년만에 출가사문이 되어 그녀를 다시 찾았다. 묘지 위에 붉게 노을이 질 때 가슴이 저러왔지만 울진 않았다. 그 해 5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다. 나는 문학을 좋아해서 실천문학 동아리에 열심이었고 그녀는 ○○연구회 흔히 하는 말로 운동권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동아리방이 이웃해 있어서 서로 빗자루를 빌리거나 분필을 나눠 쓰기도 하고 책을 빌려 읽기도 했다. 그 때 감명깊게 읽었던 소설 동의보감은 그녀에게 읽어본 책이었다. 그녀는 키가 작고 단발머리에 유난히 눈이 컸다.

그 해 봄 매일같이 벌어지던 시위현장에서 그녀가 날라온 돌과 화염병을 내가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뒤풀이 자리에서 소주잔을 나누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를 선배님 대신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죽었다. 91년 봄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내리고 제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자살하는 젊은이가 줄을 이었다. 그녀는 그날 충무로 가두시위에 나갔다가 최루탄을 난사하며 달려드는 백골단을 피해 뒷골목으로 쫓기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녀를 묻고, 나는 한달 넘게 잠 한숨 거의 못하고 펄펄 끓었다. 눈을 감았다가 경찰의 군화발에 짓밟혀 울부짖는 그녀의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곤 했다. 병원에 실려가 모르핀 주사를 맞고 깜박깜박 꺼져가던 기억은 지금도 숨을 막히게 한다.

다음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다. 모든 것을 잊고 일에 파묻혀 살려고 했지만 회사가 노사분규에 휘말렸다. 내가 편히 쉴 곳은 이땅에 없는 듯 했다. 그 때 우연히 법정스님이 쓴 효봉스님 일대기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읽고 송광사에서 머리를 깎았다. 어머니 품 속 같다는 조계산에 안겨 하루하루 다시 태어나는 기쁨에 젖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조계사는 전쟁터였다. 총무원이 들어있는 불교회관 뿐 아니라 조계사 경내까지 점령한 경찰을 몰아내기 위해 오전부터 시작된 몸싸움은 석등이 무너지는 바람에 전경 여러 명이 깔려 병원에 실려가는 불상사를 빚었다. 경찰은 불교회관 앞으로 물러났고, 자신감을 얻은 스님들은 총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을 몰아내고 간헐 계신 원로스님들을 구출하자며 전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비구니스님들과 신도들까지 합세하여 전경과 밀고 밀리는 육박전이 벌어졌다. 스님과 신도, 전경이 얽히고 설켜 흙먼지가 자욱히 일고 신발이 벗겨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맨 앞에 있다가 방패 사이에 끼여 숨이 막혀 헐떡거리다가 투구를 쓴 전경과 눈이 마주쳤다. 앓된 얼굴이 시뻘겋게 돌아올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뒤에서 고참이 걷어차는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고 있었다.

비구니스님들이 하나 둘 쓰러져 실려 나갔고, 우리강원에 갓 입방한 종지스님이 실신해서 들러 나가는 것이 보였다. “서의현을 타도하자” “최형우는 자폭하라” “김영삼은 퇴진하라” . . . 최루탄만 터지니 앉았을 뿐 나는 출가 전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하던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에 다시 서 있었다.

나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러나 종고루에 올라갔다. 진정 내 마음을 설 곳은 없단 말인가. 마지막 귀의처로 믿었던 불교마저 나를 버리는가. 기둥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날 조계사에 자비는 없었다.

4월 12일 날이 밝자마자 나는 가사장삼을 수하고 불교회관 앞으로 갔다. 그런데 벌써 누군가가 전경 쪽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우리강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도안스님이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죽비소리에 맞춰 참회의 절을 올렸다. 천 배를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송광사 학인스님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비구니스님 수십명이 참회정진에 동참했다. 오후에는 선방 수좌 스님들이 좌복을 펴고 앉아 정진에 들어갔다. 나는 삼천배를 넘게 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그날 조계사는 수행자로 가득했다.

개혁회의와 정부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언제 어느 때 삼사월의 조계사 사태가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다시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회정진으로 의연히 맞서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난 초파일 봉축행사를 마치고, 빗속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청년불자들이 보여준 오체투지는 이천만 불자의 가슴에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행자교육원에서 일보일배를 경험했던 스님들은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외도라고 부르는 힌두교도 간디도 평생 아힘사(비폭력)를 실천했고, 예수님도 ‘악한 자를 적대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누가 만일 겹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내주라’ 고 했거늘, 우리는 위없는 보리를 이룬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따라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수행자가 아닌가!

부처님이 부루나 존자와 나누었다는 다음의 대화는 개혁을 맞은 한국불교에 던지는 한줄기 빛이 아닐까. 어느날 부루나는 부처님께 서쪽지방에 가서 포교를 하겠다고 청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었다.

“서쪽 사람들은 사나우니 욕을 하면 어떻게겠느냐?”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때린다면?”

“뭉둥이나 돌로 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뭉둥이나 돌로 친다면?”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만약 죽인다면?”

“열반에 들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定慧社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에 온들 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간들 떠나는 길 알지 못하거늘

그 어디서 오고가는 중생들을

‘내 아들’ 이라 하여 슬퍼 눈물 흘리는가!

설사 오는 길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과정이니라.

찾지 않았는데 그는 왔고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는 여기서 떠난다.

그는 어디에선가 이곳으로 왔다가

잠깐 머물다가 떠나지 않는가?

여기서는 다른 중생이 되어가고

저기서는 또 다른 중생이 되어오니

오고가는 사람마다 그 모양 바꾸어 오고가니

가는 듯이 온다면 그 무엇을 슬퍼하라!

야! 내 가슴 속에 숨겨진 화살은 사라지고

깃들었던 슬픔의 화살을 뽑아내니

아들의 죽음 때문에 괴로웠던 모든 슬픔이

명든 내 가슴에서 멀리 사라지네.

모든 슬픔과 고통을 멀리 벗어나

내 가슴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나니

거룩하신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께 귀의하여

마음의 평온을 얻었기 때문일새.

Patacara's Five Hundred.

〈Psalms of the sister;p-77〉

〈12호〉

30대의 군생활

연각 | <14호>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논산의 육군제2훈련소를 지나게 된다. 서울의 길상사 개원 기원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예불을 마치고 새벽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길에도 어김없이 제2훈련소는 창밖에 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맘 때, 훈련소에서의 생각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다. 사격장, 유격장, 각개전투장, 그리고 막사와 법당에서의 어색했던 한 나이 많은 훈련병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하다.

출가하려고 직장생활을 마감할 때 병역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던 인사담당관의 말은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어 있었다. 새 정권은 병역특혜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했기 때문이었다. 사표가 수리되고 출가한지 채 4개월이 되기도 전 행자실로 나를 찾는 전화가 빈번해지기 시작했고, 얽히고 얽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서 서른의 나이에 행자복을 입고 제2훈련소를 향해야만 했었다.

입대를 하루 앞두고 송광사를 나설 때는 오히려 담담했다. 하지만 출가의 뜻을 비쳤을 때 한사코 만류하며, 혹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닌 지 자책하던 속가의 형님이 멀리 포항에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찾아와서는, 할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잘 다녀오라' 하며 눈가에 이슬을 드리울 때는, 내가 처해있는 문제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함이 밀려왔었다. 하지만 나로 인해 많은 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면서, 이 순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그저 그렇게 억지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설마 이 나이에 군에 가는데 3년을 다 채우고 나오게 되겠느냐."며, 서로 한가닥 희망의 지푸라기를 잡고 안심하려 노력했었다.

"탄원서를 써서라도 꼭 빨리 제대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눈물을 감추던 형님을 뒤로 하고, 입소대의 문을 들어설 때는 다시 불안감이 밀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입소대에서의 신체검사 역시 사정의 서슬이 시퍼렷던 시기인 만큼 아무런 걸림없이 통과되어 버렸다. 마음으로 용납할 수는 없었지만,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할 때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날이 초파일 전날이었기에 초파일은 입소대에서 보내고(법당은 없고, 강당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이라며, 과자와 음료수가 특식으로 나왔었다. 이것이 군의 종교 현실이구나 싶었다) 이틀 후 훈련소에 입소했다.

거의 열 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훈련병들과 함께 받았던 훈련. 사실 나이 먹고 군에 입대하면 이미 한물간 퇴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티가 나는 것이 달갑지 않아서 젊은사람에게 뒤지지 않고 똑같이 훈련받기 위해 노력했었다. 사격도, 각개전투도, 유격도 마지막 행군까지 열외되지 않고 그들 속에 파묻혀 훈련을 받았다. 어차피 받을 훈련이라고 포기한 뒤라서 오히려 견딜만 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훈련장에서 훈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면 항상 호남고속도로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신나게 달리는 고속 버스를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 버스를 타볼까!' 그 속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제일 길게 느껴진 4주의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연병장에서 퇴소식을 하던 날. 면회온 가족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펄펄 흘리는 이등병들의 모습을 볼 때만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대 하지 않았던 친지들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쪽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으며, 빨리 제대할 수 있도록 손 쓰지 못함을 미안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내가 위로해야 했었다.

‘어쩌다 이런 자리에 와 있는가?’

생각하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대학에서 군사훈련 받고,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시작한지 7년째, 예비군도 다 끝나가는 무렵에 다시 군에 입대해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사회제도의 불공평함을 느껴야만 했고, 제도 앞에 나약하기만 한 개인을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그래도 나이가 많은 것이 참작되었는지 군종병과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배치된 부대에는 법당은 없었다. 교회 뿐이었고 그나마 교회에 군종병이 둘씩이나 있어 군종 병이 남아도는 부대였다. 따라서 또 한번 병과가 바뀌어야만 했고, 나이가 많다해서 누구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에 인사과에서 다른 신병들보다 일주일 이상을 대기해야만 했다. 겨우 행정병 보직이 주어졌으나 자대를 배치받고도, 각 중대 인사계들이 골치 아픈 녀석이 왔다고 한사코 마다하는 바람에 또 일주일을 대대 인사과에서 하는 일없이 그렇게 보내야 했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권력자가 예고 없이 휘두른 사정의 칼날이 아프게 마음에 파고 들었고, '전생에 빚진 업보가 두렵기도 하구나' 싶었다.

일주일의 넘어갈 무렵, 다행히 몇 번 대대 인사과를 드나들던 2중대 선임하사가 매일 부동자세로 한 쪽 구석에 앉아 있는 나이먹은 신병이 불쌍했던지 중대 짚차에 더블백을 실어주었고, 그 날부터 자대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디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끝이 있으랴! 이제는 다 접어들 때인 것 같다. 사실 나이 어린 고참병, 간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느꼈던 서운함을 어찌 나로 인해 그들이 느껴야 했던 불편함에야 비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군이지만 사회통념상의 나이, 이에 따른 인정과 군조직 질서유지를 위한 위계질서 사이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나이 많은 병사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 그것도 열 살 씩이나 차이가 났으니... 중대 전체의 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결코 환영받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해도 현실 속에서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었다. 나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를 늘 생각했었다. 내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했었다. 쫓병때

는 내가 고참이라면, 고참이 되어서는 내가 쫓병이라면, 내게 서운하게 하고 때로는 계급을 떠나 좀 무례하다 싶을 때도 항상 내 입장은 접어두려 노력했었다. 그것만이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을 넘는 최선의 방법이요,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귀동량한 부처님 말씀을 통해, 그런대로 쉽게 상황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을 지금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군생활도 끝낸지 2년이 넘어섰다. 당시의 병영생활의 경험은 나에게 나이를 잊게 만들어 놓았다. 도반스님들이나 윗,아랫반 스님들을 대할 때, 내 나이로 기준을 삼는 경우는 없다. 항상 어느 때든 그 상황속에서의 질서만이 기준이 될 뿐이다.(다만 아랫반의 나이 많은 스님들로 나의 군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다)

하지만 당시 2년여의 군생활에는 마음속에 항상 개운치 못한 앙금이 함께 했음도 묵과할 수 없다. ‘꼭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느낌,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있다’는 어색함이 항상 떠나지를 앓았었다. 내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서 나 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결코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곤 했었다.

이제 출가한지 3년째, 물론 군생활과 승가의 대중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 내 자신으로 인해 대중을 뇌고롭게 하는 경우는 없는 지. 버스 창가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논산 제2훈련소의 기억위에 물음표를 찍어 본다. 定慧社

산행

한운 | 〈9호〉

어디서 온 황토바람이길래
저리도 거센가!
저질러 놓은 것만큼만
어깨에 짊어진 채
쉬어 가란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련다
짐 벗을 그 곳으로 定慧社



방장스님¹⁾을 기리며

정원 | <11호>

가셨습니다. 스님은 가셨습니다. 껍데기인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셨습니다. 조계산 자락 여기저기에 스님의 자취를 남겨 놓으신 채 미혹한 중생들에게 무상함을 몸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스님의 모습을 뵈을 것이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떠나 버린 당신이 너무 서운합니다.

당신께선 그 동안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셨기에 껍데기인 육신을 벗으셨겠지만 이 미혹한 중생은 아직도 미궁을 헤매고 있는지라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아쉽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님을 모시면서 놀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행자시절에 부지런히 읽고 외웠던 초발심자경문의 구절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절들을 기억하시며 또 속내용을 설명해 주실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스님의 그 모습을 뵈을 수가 없습니다. 행하니 뚫린 이 가슴을 무엇으로 메워야 할 지 답답합니다. 스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찾아오신 어느 분에게나 항상 웃음띤 얼굴로 즐겁고 재미나게 법문하시던 그 모습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돌아가는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인자한 모습이 때로는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한 동자승 같다고들 했습니다. 스님의 몸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법력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기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제방에 돌아다니면서 공부하시던 얘기를 들을라치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며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때라 선원의 스님들이 배가 너무 고파 김치를 훔쳐먹곤 했고 그것을 안 원주스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 김치에 소금을 가득 넣곤 하였는지요. 공부하시는 스님네와 소임을 맡으신 원주스님간의 밤마다 불꽃튀는 눈빛 경쟁이 대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절 집안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절 집안도 바깥세상의 영향을 받은지라 먹고 생활하는 것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끄러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지대방에 널려 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혹시 시주자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출가의 정신을 잊고 살지나 않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일각선사

청정도량의 승보종찰로서 지금까지 역대 국사님, 조사님들의 뜻을 잇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당신께서 평생동안 계율을 지켜 모범을 보이신 부분도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 스스로가 오계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테이프를 만들어 배포하시면서까지 계율 지키기를 강조하셨고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생활을 웬만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네 스님들이 막행잡식하는 것을 호되게 질타하셨고 깨친 자는 무애행을 해도 된다는 어줍잖은 일설에 일침 놓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계율을 어기고서는 참다운 불법이 유지될 수 없고 우리 한국의 불교가 다시 중흥되기 위해서는 부처님법을 따라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인자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고 자비로 못 대중들을 감싸안으시며 대체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수행자로서 엄격하시다 보니 저희들에게 야단을 치실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수행하던 때와는 너무도 다르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항상 서툴고 머트럽다 보니 경책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경책을 받을 때야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가르침마저도 받을 수가 없으니 저에게 조금 더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가신 스님이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언젠가 스님은 저에게 이렇게 혼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스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어느 보살님께 약을 부탁하였는데 그 보살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시고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무척 나무라셨고 재가신도들에게 함부로 무슨 일을 시킨다거나 부탁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훈계하시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모습도 뵈올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또한, 저에게 수행자의 생활자세인 무소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보조국사님이 쓰신 계초심학인문의 ‘재색지화심어독사財色之火深於毒蛇’를 인용하시면서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은 도심소道心疏니 가진 것을 누구에게나 선뜻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하면 번뇌와 망상이 생기나니 어떻게 도를 깨칠 수가 있겠느냐며 수행자는 항상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득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에 관대해질 수 있으며 마음이 항상 너그럽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의 덩어리를 자꾸자꾸 도려내야 한다. 도려내면 낼수록 더욱 더 가득하게 채울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자는 항상 빈곤을 느끼고 허덕거리며 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종으로서 살다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 나는 주인인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의 덩어리는 얼마나 큰가. 오대양의 짠 바닷물을 다 마셔도 한량이 없음이라. 이제 스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만은 조계산에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뺏속 깊이 절절이 새겨 열심히 수행할 것입니다.

스님이시여 하루빨리 이 사바세계에 다시 오셔서 무명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소서. **定慧社**

근본

애욕아, 나는 너의 근본을 아노라.
 뜻으로 말이암아 생각이 생기나니
 만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있을 수 없노라.
 애욕이 있어 번뇌가 생기고
 애욕이 있어 두려움도 생기나니
 애욕을 버려 자유로우면
 두려움과 번민은 사라지리라.
 처음에는 달다가 뒤에는 쓰디쓴 과일처럼
 애욕 또한 그와 같아서
 뒷날 지옥 고통을 받을 때에는
 한없는 세월 동안 불에 타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탐욕의 포로가 되어
 피안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재물쌓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하니
 남들을 해치면서 자기 또한 스스로 얽어매누나.

법집 요송경 제 1;애욕품;〈4-778〉

〈23호〉

철쭉꽃은 붉었던가?

창연蒼然 | 치문

철쭉꽃은 붉었던가?

내 눈眼속의 눈이 시퍼런 거울 되어 비추는
 그대! 철쭉꽃은 비고 비어 고요하고 고요한

텅 빈 것이었고

철쭉꽃은 붉었던가?

시퍼런 거울 되어 다시금 비추는

아! 철쭉꽃은 푸르고 푸르며 붉고도 붉은

충만이었네.

기도

본연 | <15호>

얼마전 '식물의 신비생활'이라는 책을 읽었다. 주된 내용은 인간의 감정을 식물이 알아차리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물을 대하면 식물도 호의를 갖고 좋아하며 미운 감정을 가지고 식물을 대하면 식물도 위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식물의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으며 식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이 책에서는 미국에서 영국에 있는 식물의 병을 치료했다고 했다)

이 책을 다 보았을 때 인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으며 무변, 무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용은 경전에도 있다. 부처님 시대의 비구가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는데 나무의 목신이 방해를 하여서 정신집중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 뵙고 사정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 자비관을 말하면서 그 나무 밑에 가서 자비관을 하라고 권했고 그 비구는 나무 밑에서 자비관을 하였는데 한 철 공부가 끝날 때 주변에 있는 목신들에 둘러싸였으며 스님이 없을 때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가도 스님께서 자비관을 하면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냈다고 한다. 2600년 전의 이야기가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방학때의 기도는 강당생활하면서 하는 3번째 기도였다. 처음엔 스님은 참선 공부가 유일한 공부인 줄 알았고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선방스님이 되어야 선정삼매에서 노니는 줄 알았다. 또 기도라 하면 기독교의 기도와 보살님들의 기복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는데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면서 차차 인식이 바뀌어갔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도반스님과 함께 건봉사에 가서 일주일간 했었다. 사분정근을 오로지 절로만 하였는데 힘들게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나니 강당에서 있었던 자질구리한 잡념은 지워지고 새로운 각오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두 번째 기도는 충북 제천 무암사에서 용기를 내어 목탁을 쥐고 염불하면서 21일간 하였다. 염불은 못 하지만 정성껏 한다는 심정으로 하였다. 다행히 무암사 주지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래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그러나 몸이 적응을 못 해서 하루 법당에서 10시간 지내고 나오니 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다.

지난 방학에는 태안사에 가서 21일 기도를 하였다. 법당이 홀로 푹 떨어져 있어 혼자서 주변 눈치 안 보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이력이 붙어서 그런지 먼저 번보다 힘도 덜들고 여유가 생겼다. 염불에 여유가 생기면서 염불 계송의 내용이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아! 그렇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금일신중 我今一身中 내가 지금 한 몸 가운데에
즉현무진신 卽現無盡身 곧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변재삼보전 邊在三寶前 두루계신 삼보전에
일일무수례 一一無數禮 날날이 무수한 예를 올립니다.

원하옵건대 사생육도 법계에 유정의 다겁생에 지은 죄업장을 내가 지금 머리 숙여 참회하오니
 멸하기를 원하옵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죄업장이 다 소멸되어 세세생생에 항상 보살도를 행하길 원하옵니다.

원하옵건대 이와 같은 공덕으로 일체에 두루 미치어 우리와 모든 중생을 더불어 반드시 극락국
 에 태어나 함께 불도를 이루길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소멸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송하는 계송은 말 그대로 혼자 잘 살겠다, 혼자 도 이루겠다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과 참회였다. 법당에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의 나무와 다람쥐 개미 등의 유정무정물에까지 발원과 참회의 감정이 전달될 터이니 신심이 안 나겠는가! 어떤 스님의 말처럼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면 신심이 더 난다’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소와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하루종일 베어 있었다. 이렇게 천일기도를 한다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옛 어른 스님께서 하신 ‘중이 천일기도 한 번하면 평생살 복을 짓는다.’란 말이 실감났다.

하지만 그렇게 21일이란 시간을 보냈건만, 다시 강당에 돌아와 보니 기도한 마음은 아련해지고 대교반이라는 권위와 시비是非 속에 묻혀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당의성을 느낀다. 定慧社

출가 1년

정목正目 | 치문



“자, 속세에 미련 있습니까?” 은사 스님의 한마디에 넙죽 “아닙니다, 미련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시작한 출가생활, 이제 어느덧 머리를 깎은 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간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빛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앞도 뒤도 안돌아보고 달려온 세월. 지나간 세월동안 졌던 빛이 너무 깊어서인가, 양껏 욕심만큼 빨리 갚아버리고 끝내 버리려는 마음 때문인가, 오히려 더 빛을 지어버린 건가. 한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도반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속가에 있을 때 너무나도 길고 깊었던 방황의 수렁 속에 있었던 독기가 아직까지 남아 여러 도반스님들을 많이 힘겹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럽다. 이제는 주변도 보살피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 부처님 법의 위신력으로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덮어주는 도반 스님들과 부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부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지금 이 한 순간 순간의 살아 있음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비록 누추하지만 부처님이 내리신 법복을 입고 부처님의 이 큰 자비의 따뜻함이 내 이웃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定慧社

그런 소리가 좋다

선화禪和 | 치문

그런 소리가 좋다

조근거리며 흘러가는 개울처럼
바닥에 깔린 자잘한 잔돌품고
자잘 거리며 구르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가 좋다

갈리고 씻겨 반질반질 둥근 돌
찢기고 깎여 삐죽삐죽 모난 돌
서로 어깨 부딪히며 내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가 좋다

고만고만한 넋두리 늘어놓는
아기자기 문고판 같은 그런 소리
질풍노도의 삶이 아닐지라도...

취모검

도웅道雄 | 사집

억겁토록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이 있으니

칼날을 버린 적 없어도
녹슨 적 없고 무뎠지지도 않아
무엇이라도 가져다 대면 잘린 흔적도 없이 잘려지며

크게 한번 휘두르면
삼천대천세계를 일도에 양단 내는
지극히 큰 칼이라

지금 주인 이 칼로
머리털도 밀고 손톱이나 깎고
손끝에 가시를 뽑든 말든

정혜탐방

남국선원장

혜국慧國스님 <19호>

한반도의 끝봉우리 한라산은 보고자 하는 이에게는 안개이고 구름이었다.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자태의 寒蘭을 키우며 오천년의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으리라.

한라산 남쪽 돈내코에 자리잡은 무문관 남국선원. 출가자라면
한번쯤 꿈꾸어 보는 그 수행처의 선원장이신 혜국스님을 보러 가는 길은,
초학의 입장에서는 스님의 자비심만을 기대할 뿐이었다.

해인사 일타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성철, 구산 큰스님의 지도로
두루 제방을 섭력하신 혜국스님. 스님의 진면목은 형형한 눈빛과 연비허공한 손가락 등,
가늠하기 힘든 언어 이전의 세계였다.

○ 결제중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근황이란 게 뭐 있나! 중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늘 요즘이어야지. 아침 저녁 예불 모시고 부처님 법 좋아서 항상 화두들고, 부처님에 대한 생각하고, 중은 그것 떠나면 따로 볼 것이 없어요.



○ 강원 사교반 다니시다가 선방으로 가셨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주 복잡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방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강원을 다녔지. 사교반때 쯤 수필도 쓰면서 바깥 반연에 많이 꼬달렸어요.

성철 스님께서 한번 올라오라고 하셔서 갔었는데 요즘 눈빛이 달라졌다며 하루에 5천배씩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죽겠습니다. 하루에 5천배씩 10만배를 하고 나니 또 다시 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장경각에서 기도를 하는데 절하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구요. 몸이 거뜨하고 날아가는 것 같았어. 자신도 모르게 신명이 나서 절을 하면 일어나지고 또 절하고, 얼마나 좋던지 그냥 후딱 지나갔어. 그때 내가 중이 되었다고 보지요.

‘만약 다른 길로 잘못 갔으면 어떻게 될 뻔 했겠습니까! 부처님, 정말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생 다음생에도 정말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손가락을 순간적으로 태워버렸어요. 성철스님도 우리스님도 연비한 줄은 모르셨어요. 병원에 가서 손가락 뼈를 잘라냈는데, 한 달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손에 붕대를 감은 채로) 태백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태백산에서 밥 한 끼 먹지 않고 바로 생식을 하고 염분을 먹지 않으니까 체질이 바뀌고 열기운이 다 빠져 그냥 아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연비한 사람중에 나하고 한두 사람만 빼고는 거의 건강들이 나빠요. 연비하면 3~40분 타는데 그때 화독이 들어가서 열 안 찬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정도 신심가지면 절을 하든지, 목탁을 치든지, 참선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그 기운으로 다른 걸 하지 연비를 권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나는 그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한번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시다.

그때부터 참선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생각 아가씨생각에 참선이 되는게 아니라 한시간 앉아 있으면 57분은 망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먹고 싶은 밥 안먹고 솔잎 뜯어먹고 풀잎 뜯어먹고 생식하면서 그 첩첩산중 도솔암에 앉아 있는데(장좌불와를 했어요) 매일 망상이 나요.

하루는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잘못 알고 독초를 뜯어먹었어. 그 길로 죽었지. 영혼이 되어 이곳저곳 떠돌다 돌아와보니까 나를 산삼캐는 처사가 업고 내려가는 거야.

나랑 너무 닮은 사람이 업혀 가길래 처사에게 물어보고자 혼드니 처사가 자꾸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산막까지 따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코 생긴거나 눈 생긴거나 손가락 없는거랑 나랑 똑같애. 이상해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턱석에 눕혀놓고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는데(사람이 죽으면 이빨을 꼭 물잖아요) 그때 이빨 두 개가 부서졌지. 이거야.(이빨을 보여주심)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들은 체도 하지 않아서, 시체 보고는 ‘스님, 보소 스님. 어찌 그리 나랑 똑같이 닮았소.’ 하고 손을 잡았는데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유체이탈해서 영혼이 돌아다니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신심이 막 우리납디다. ‘정말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정말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쓰는 거지 정말 나는 따로 있구나. 부처님! 이후로는 내몸뚱이를 위해 산다든지 다른 생각으로 사는 일은 기필코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중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연비를 하고 나서도 진짜 중은 아니었어요. 억지로만 되더니 그 일이 지나고 공부가 조금 되기 시작해. 그렇게 내 몸뚱이 내버려두고 돌아다니던 놈이 도대체 누군고. 참나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데 보려 하면 보이지 않으니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란 말인가’ 하고 억지로 억지로 앉아 있으면 망상은 훨씬 적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잠이 그렇게 와요. 잠이 많이 오길래 천정에 끈을 매달아 놓고 머리에 두르고 참선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턱부분이 벗겨져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철스님께 찾아갔는데 당신이 쓰시던 철발우를 하나 주시면서 ‘수건을 동그랗게 해서 물을 올려놓고 공부해 보라.’ 하시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꾸만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또 떨어지고 한 시간에 스무 번도 떨어지더라구요. 어떤 날은 ‘나는 틀린 사람이다.’ 라고 그만 둘까도 생각했다가, 하루는 분명히 저녁 8시30분에 올려놨는데 눈을 딱 떠 보니 해가 떠오르더라구. 별떡 일어나니까 발우가 ‘뽕’ 하고 떨어지는데 찰나간에 다른 것이 보여요.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람쥐도 될 거고 소도 될 거고 다 될 것 같더라구요. 그 길로 뒷산에 올라가 다람쥐와 산짐승들에게 ‘야 너도 된다. 너도. 이젠 누구나 되도록 되어 있다. 이젠 남의 것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무결하게 있는 것을 다만 보지만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더벅머리로 쫓아 나왔죠. 성철스님, 경봉스님, 구산스님께 찾아 갔는데, 세 분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만 맞다고 그랬어요. 두달쯤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희미해지데요. 그렇게 참선이 시작됐죠.



은사이신 일타스님과 함께

○ 선지식은 누구십니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선지식은 어렸을 때는 성철 큰스님과 은사스님이신 일타 큰스님이시고, 그 후 몸이 아파서 상당히 힘들어 한 이후로는 거의 구산 큰스님이 많은 영향을 끼치셨죠.

구산스님하고 처음 인연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참아도 참아도 잠이 오길래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구산 방장스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혼자 도저히 수행이 안되니 제가 송광사에 가서 삼년을 살테니 제가 사는 모습을 보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면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수좌만 있었지, 삼년을 지켜봐달라고 하는 수좌가 없어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삼년 결사를 했었는데 노장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나 봐요.

구산 큰스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녁 열한 시쯤 되면 손수 삼을 푹 끓여 가지고 수선사 마루에다 갖다 놓고는 바닥을 푹 푹 치고 가십니다. 나는 그때까지 안자고 있다가 삼을 마시고 다시 참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도 빠지 않고 45일간을 계속 하셨어요. 만약 삼을 안 먹고 그냥 자는 날이면 방장실로 불러서 다짜고짜 “石流不流水(돌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라, 이 말을 일러라.” 하시곤 대답이 나오기 전에 주장자로 아무데나 패는데, 요령껏 피하지 않았으면 반병신 되는 거야! 어른이 끓여다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잤다는 거지. 맞기 싫으면 대답을 하던지 부지런히 참선을 하던지.....

또 인월정사라고 조계산 상봉 밑에 있는데, 당신이 살겠다고 지어놓고 나더러 올라 가라고 그랬어요. 그

래서 연수스님, 도원스님하고 셋이서 올라가 겨울 한철 사는데 참 재미있게 살았어요. 겨울 석 달 동안 땀 나무를 셋이 전부 밑에서 해놓고, 밀가루를 큰 보따리로 한 짐씩 짊어지고 올라가서 석달 먹을 빵을 해 놓았어요. 며칠간 그것을 얼음에 꽂꽂 올려 놓고 묵언정진을 하는데, 당번이 일주일 동안 군불을 때고 매일 빵 세 개씩 아홉개를 찌서 각자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노장님이 올라 오셔서 다짜고짜 두드려 패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소식을 일러라. 巖頭開眼(바위가 눈이 열렸다)이니라.” “열린 눈에 열렸다 안 열렸다하는 말씀은 그 허물을 어떡하실랍니까?” 싸움이 붙었어. 두 스님들 보는 앞에서 한바탕 싸우고 내려가셨는데 입승 사는 휴암스님에게 “혜국수좌가 한쪽 눈이 열렸다.”고 그랬답니다. 남국선원 짓기 전 아팠을 때도 손수 약도 지어오시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루는 치과를 가는데, 왜 가냐고 물어 보시기에 “어금니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하도 잠이 많아서 속이 상한 김에 나도 모르게 어금니를 물고 울다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뒷날 조용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쇠금자에 어금니아자로 금아金牙라는 호를 주셨습니다. 아자가 깃대라는 뜻도 있어서 황금깃대라는 뜻이었습니다. 호를 주시며 “너는 내결을 떠나면 안된다.”라고 하시데요. “스님! 생각해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한 철을 살고 난 다음 “스님 말씀대로 그 호를 쓰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스님께서 가장 기억나는 도반이 있다면 어떤 분이든 무슨 이유입니까?

도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 봉화 축서사에 계시는 무여스님이 먼저 생각나요. 내가 그 분



을 워낙 좋아해. 도반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존경해요. 무여스님은 선방에 한참 다닐 때 상당 부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무여스님같은 분이 정말 스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수좌계, 불교계에 계신 것이 참 다행입니다. 내가 훌륭한 도반스님 만나서 살게 된 것을 보면, 다른 복은 없어도 스승복하고 도반복은 참 많다고 생각해요. 도반복, 무시 못합니다. 도반이 받은 공부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하고 만나면 밤을 꼬박 샅니다. 그 양반이 내일 모래면 환갑인데, 참 나한테는 도반이라기보다 나이도 한 일곱 살 많고 참 존경하는 분인데, 도반스님이라고 하면 난 무여스님 이상된 분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그런 스님을 도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만 해도 좋아.

○ 무여스님하고 언제부터 그런 인연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된 동기는, 그 양반이 정진을 참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났었거든. 어디서 사는지 모르다가. 그 무여스님이 오대산 상원사로 간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상원사로 찾아 갔지요. 한 30년은 되어가네요. 거기서 만나 살아 보니까 정말 사는구나 싶습니다. 그 분도 내가 송광사 간다고 하니깐 “난 지금까지 선방에 다녀 봐도 스님처럼 사는 사람 못 봤소. 좀 같이 삽시다.”해서 그래 이제 둘이 같이 송광사 내려와서 3년 결사를 같이 했죠.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도성암 등 내내 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마지막 헤어진 것이 망월사에서 같이 살다가 축서사로 들어가셨어요. 열심히 살다보면 그렇게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난 스승도 도반도 어찌면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 스님께서 들으셨던 화두는 무엇입니까?

‘板齒生毛’ 전강스님께 탄 화두인데, 화두를 받고 앉아 있으려니까 학교 다닐 때 짜장면 먹던 생각, 어머니 생각 등 온 생각이 다 나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나던지 화두가 될 턱이 없죠. 그러다가 경봉스님 회상에 오니까 “무슨 화두하노?” “판때기 이빨에 털 난 겁니다. ‘왜 털났는고.’ 합니다.” “그건 판때기 이빨이 아니고 앞이빨이다.” 하시거든. ‘경봉스님은 남쪽으로 대단한 도인이고 전강스님은 북쪽으로 대단한 도인이니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어느 노장이 틀렸나? 그러니 화두가 안 되는 거야.

어거 참 부끄러운 얘기야. 얼마나 내가 따지기를 좋아했던지. 서울 명동에 있는 화교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板齒生毛’가 무슨 뜻이냐고 하니깐 그 양반도 모른다는 거야. 한참 있다가 어느 노인네를 모셔 왔는데, 노인이 하는 말이 “송곳니가 개이빨처럼 생겨서 견치라 부르고, 어금니는 음식을 씹는다고 식치라 부르고, 앞이빨이 판때기처럼 생겼다고 판치라 합니다.”

그럼 앞이빨에 털난 것이 맞는거라. 그 길로 전강스님께 쫓아가서 “스님 잘못 말하고 계십니다. 판때기 이빨의 털이 아니라 앞이빨이랍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지팡이를 들고서 “이 놈이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더니.” 하시며 소리소릴 지르시더라구요. 내가 어렵게 알아내니까 고맙다는 말은 안하고 때리기만 해서 ‘판치생모’ 를 안 해 버렸어.

그날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내 마음대로 ‘뜰 앞에 잣나무’로 화두를 바꿨지.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지도 모르고 혜국스님 공부 잘 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 이제는 스님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싶더만. 그러던 중 성철스님인가, 구산스님께 갔던가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냥 다시 ‘판치생모’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글자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글자가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느냐, 그게 이해가 안가요. 도저히 안되서 구산스님께 가서 “스님 제가 화두를 바꾸겠습니다. 자꾸만 헛갈립니다.” 하니까아 그분이 알고 그랬는지 ‘뜰 앞의 잣나무’를 주시더라구요. 그때부터 뜰 앞에 잣나무에 매달리다가 그 그릇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화두라는 것은 말씀話자 머리頭자거든요. 말머리란 뜻인데 말이란 뭘니까? 말은 우주 삼라만상 모양 있는 것을 모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머리는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의 진리이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나 동산스님이나 부처님께서서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물으면 그냥 탁 보여줬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것이 화두예요. 그것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앞이빨이라고 해도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은 똑같고 판때기 이빨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속에 숨겨진 뜻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글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화두는 뜰앞의 잣나무든, 간시곶이든, 마삼근이든, 판치생모든 정말 글자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안목만 탁 터져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미닭이 부치고 계란이 우리 중생인데 온도가 따뜻해지려면 어미닭이 앞의 털을 다 뽑고 병아리 체온과 하나가 될 때 탁 터지거든요. 부처와 하나가 될 때 말이죠. 그러면 내 몸뚱이는 계란이요, 화두는 어미닭체온이니까 ‘어째서 어째서’ 하는 의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팍 차는 날 탁 터져요. 내 몸뚱이가 터져요. 그리고 나면 판치생모든, 앞이빨에 털난거든, 판때기 이빨에 털난거든 글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제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 선방 다니실 때 어록이나 경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셨습니까?

그때는 경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뭐라 해도 선문촬요를 곁망속에 몰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심 안 나면 몰래 포행시간에 가지고 가서 막 읽으면서 좋을 때는 막 울고 안될 때는 막 소리지르고 그랬습니다.

○ 요즘 경전이나 어록같은 것 보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금강경이 좋아보이더니 요즘은 ‘제법실상’ 도리를 설한 법화경이 그렇게 좋아보이더라구요. 어떤 때 법화경을 읽다보면 ‘아 이럴 수 있구나.’ 하고 찬탄이 납니다. 화엄경은 아직 내 신심에도 읽다보면 못 따라가요. 너무 장황해 가지고 그 세계를 제가 다 못 미쳐요. 그렇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내 회갑에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화엄, 법화, 열반을 지고 가서 한번 다 거둬 봤으면 할 정도로 찬탄합

니다. 법화경은 그 분들이 워낙 신심이 나서 찬탄하다 보니 자랑만 너무 많은 것 같고 서론이 많은 것 같지만, 본인이 그 위치에 서 보면 자기소리 같아서 좀더 찬탄해야 하고 좀더 자랑해야 되는데 싶은거라. 제가 도움받았던 어록은 '육조단경' 이었습니다. 그전에 참선할 때는 '몽산법어' 가 상당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몽산법어蒙山法語' 가운데도 '시총상인示聰上人' 이라는 법문은 제가 좌우명으로 늘 써서 붙여놓고 공부했었습니다.

○ 저희 송광사 강원에서는 치문반 때 자비관을, 사집반 때는 수식관을 합니다. 그 뒤로는 유나스님께 화두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비관 수식관이 화두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하면, 요즘 병폐중에 하나가 자비관한다 수식관한다 하면 아주 무슨 외도 인양 취급을 하는데 그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제거되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식을 하고 국수를 먹고 찹쌀을 보충해 주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몸도 한가지만 편식해서 좋은 것이 아니듯 화두에 대한 믿음이 몰록 서서 '아! 이거는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줬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원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비관이나 수식관도 할 수 있죠. 자비관이나 수식관이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종파에서 하는 것인양 그렇게 보면 안되죠. 백골관, 수식관, 자비관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안정하고 가다듬고, 다스리는 과정일텐데 왜 그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어요. 요즘 비파사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 온 한계까지만 해야 하는데 마치 화두선은 안되고 오로지 비파사나만이 전부다 하면 이건 외도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화두선도 마찬가지죠. 비파사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도 영어를 조금 하는데 내 영어실력 가지고 비파사나 강의하는걸 들어보니까 열 마디에서 한 마디쯤 들립니다. 대충 뚜드려 잡고서 다 배운 것처럼 와서 가르치는데, 인정을 받은건지 비파사나가 완전한 건지 의문입니다. 마치 완전한 것인 양 전해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깨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간화선은 인가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비파사나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념무상으로 가는 것이 꼭 앞서서 참선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것밖에 없다 하면 이건 벌써 집착입니다. 불법문중은 不捨一法이라. 사람이 전부 각각 다르니까 업도 전부 각각 다르고 삶도 다른데 각자에 맞는것부터 시작해야죠.

○ 스님들께서 화두선만을 최고라고 지도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는 불교가 너무 편협해져서 안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말의 표현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말이 끊어진 무념무상의 상태를 화두라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깨치지 못합니다. 수식관을 했던 자비관을 했던 결국 내 자신이 없어서 버리고 통허한 내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무념무상이라고 하지요. 그 무념무상을 찬탄하고 그

것을 화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들이 되나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앞서서 참선하는 것이 전부라고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선에서 말하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폭 빠져 들어가야 결국 그놈이 독로獨露하게 나타나는데 그 상태를 우리 참선문중에서 화두라고 합니다. 어느 길로 왔든 무념무상이 되지 않으면 못 깨치니까, 무념무상인 화두는 최상승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저희 학인들이 선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과 준비를 해야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강원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지금 경전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내가 이런 사상 속에서 살 수 있다니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전들을 강원에서 한번 거둬보지 않으면 다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강원에서는 강원경전을 몰록 거둬 봐야 됩니다. 강원다닐 때 경전을 충실하게 거둬 본 사람은 선방에 와서 ‘어째서’ 하고 의단을 가지는데, 강원에서 선방가기 위해 할 수없이 졸업장 타려고 하는 것이라면 선방에 딱 와 봐요. 앉았으면 ‘학교를 가, 포교하러 가? 이거 안되는 거구만.’ 하고 망상만 합니다. 강원에서 건성으로 한 사람은 선원에 와서도 100% 건성으로 합니다. 와서 보니 별거 아니네. 이거 도 대체 되지 않네. 이리갈까 저리갈까 망상만 피웁니다.

나는 강원에 있는 스님들에게 옛날 조사스님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인생은 연습게임이 없습니다. 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지요. 나는 강원에서 현재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싶어요. 강사스님들 그거 가르치느라고 꼭 같은 말 해야 되는데... 참으로 속 타겠어요. 난 그래서 선방 스님들 보고 주지스님, 강사스님, 포교하는 스님들을 꼭듯이 모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강원에 있는 스님들이 무슨 만화책 보는 겁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전혀 몰랐다가 한 구절만 준다면 춤을 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거기에 충실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몰두하십시오. 몰두한 내용들이 내 백 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상좌를 보고 第一戒가 살생하지 말라는 계가 아니라 스님의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걸 第一戒로 해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하루에 한번은 꼭 ‘내가 스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과거 전생에 무수한 원을 세워서 출가를 했는데 전생에 버리지 못하고 애쓰던 오욕락이나 망상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를 생각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 우리가 맑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직 설었고 망상이나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꼭 익었기 때문에 익은 것일랑 더 이상 익어서 썩지 않게 하고 설은 것은 익혀서 맑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 구한말 경허선사로부터 근래에 성철스님까지 많은 선지식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일본과 비슷하게 선지식과 도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전통적 수행법이 사라져서 그런 것인지 문명이 발달되어 우리가 너무 편리한 쪽으로 살아가서 그런 것인지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 무서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중국에 도인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도인이 엄청 많이 쏟아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서옹스님, 송담스님, 진제스님 등 쟁쟁한 스님들이 있다는 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옛 스님들이 화두를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믿고, 요즘 스님들처럼 분별이나 사회에서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대체 저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뜰앞의 잣나무야!”라고 말씀해 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무조건 몰두했습니다. 지금의 스님들은 행동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써 하고 너무 성급합니다. 내가 몇 십년을 선방을 다녀봐도 ‘왜 이번철에는 안깨치지, 이번 철에는 한바탕 휘저어야 할텐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잘 안되죠. 옛날 사람들은 한번 앉으면 40분은 화두를 잡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5분도 안한다고 봐요. 안된다고 성급히 하다 비파사나도 해보고 주력도 해보고 요즘사람들은 기계문명처럼 빨리 익히려 하는 바람에 더욱 늦어집니다. 화두선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출가해서 처음 공부할 때는 ‘부처님 한평생 안 깨쳐도 좋습니다. 내 원을 이루었는데요 뭘.’ 마당을 쓸어도 부처님, 발원을 해도 중생들 위해서 발원하면 중노릇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시간나는 대로 ‘참 나는 무언고?’ 하며 열심히 정진하면 절대 10년이 안 넘어갑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한철에 끝내려고 하다 반철만 지나면 ‘지리산으로 갈까? 태백산으로 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간화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익어버린 머리가 문제예요.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화선은 틀렸다고 비파사나해서 되겠습니까?

○ 그럼 저희들에게 알맞은 수행방법은 무엇입니까?

염불을 하든 수식관을 하든 경을 보든 화두를 하든 10년만 하세요. 중생이 부처되는데 10년을 투자 안하면 욕심이죠.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길인데 어떻게 10년 투자도 안하는지 몰라요. 어떤 방법이라고 찾지 말고 나는 오늘부터 목탁잡고, 안되면 절하고, 안되면 화두하면서 10년 놀지 말고 부지런히 헛노력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 스승이 나와요. 우리 눈에서 볼 때는 헛노력이지만 부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가 자기 앞으로 딱딱 걸어오는 겁니다.

○ 스님의 원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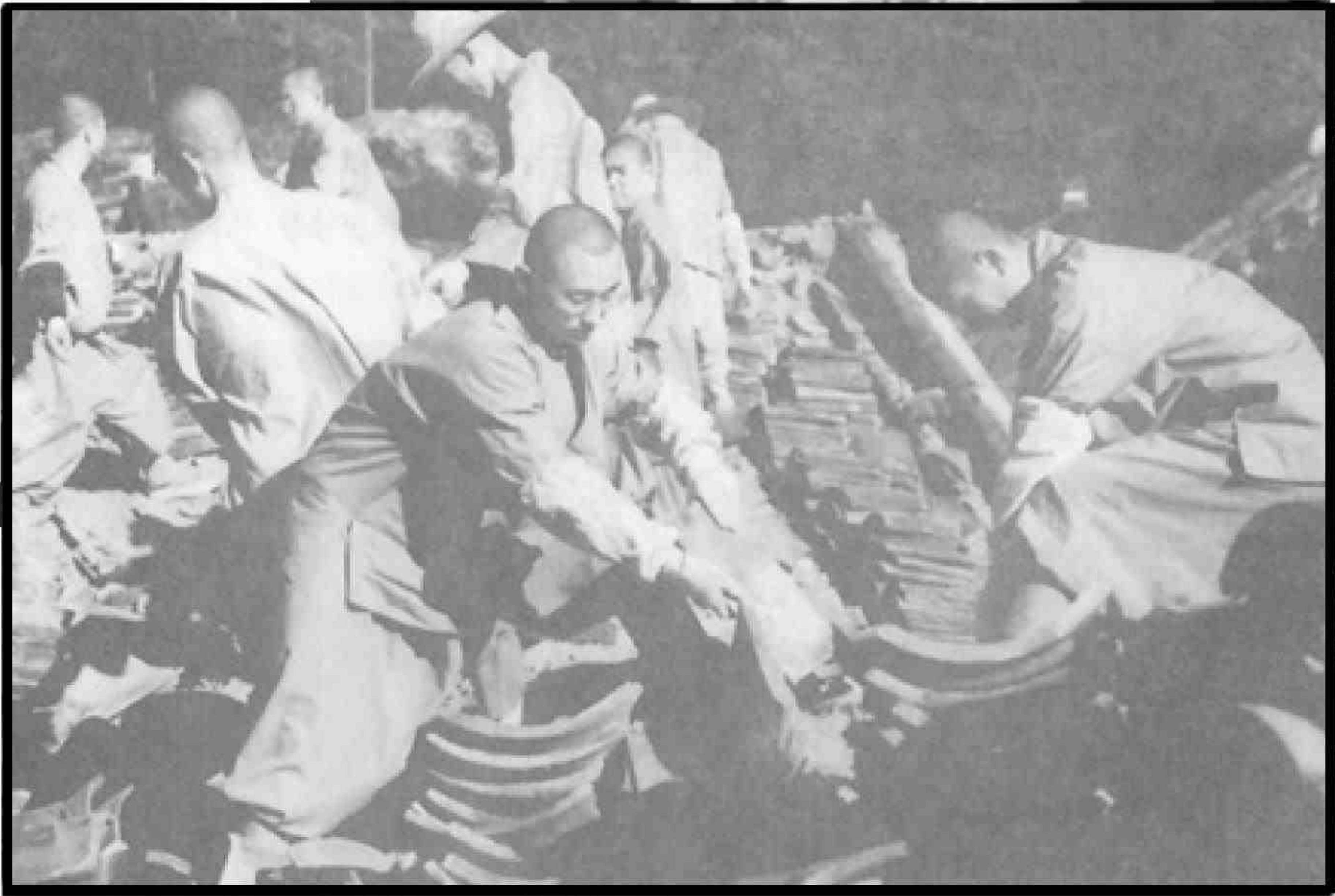
평범하게 보면 원력이지만 나한테는 마음아픈 이야기죠. 수행자는 평생 수행하는 길로만 거주했으면 하는데, 나는 불사나 법문하는데 아주 업이 많거든요. 그것은 익은 것이거든요. 이젠 말 안하고 부끄럼없이 감자 심어 먹고 산짐승 몰려 오면 먹이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처님 생각, 화두 생각으로 머리 속까지 꽂차서 나는 없어지고 화두만 독로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게 원력인데, 이게 도둑놈같은 원력이지요. 보통 큰 원력이 아니죠. 불사나 법문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다 했다고 보죠. 다시 내 수행의 본분으로 돌아가는게 내 원력입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 후학들에게 경책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경책해줄 말은 없어.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른들은 가버리고 가면 다시는 못볼 분들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같이 정진할 수 있으니까. 그저 어른들이 살아가신 모습과 서용 큰스님, 송담 큰스님, 진제 큰스님들이 다 증거로 보여 주는데 그보다 더한 경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들 눈앞에서 송담큰스님께서서는 전강조실스님께 당당히 인가를 받았지요. 너는 마음을 깨쳤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경책이지요. ‘아이구, 야 이거 틀림없는 길이구나. 우리도 하면 된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특별난거 별거 없어요. 도를 깨친 그분들이 우리앞에 당당히 계시는데 무얼 망설이겠습니까. 열심히 같이 정진해 봅시다.

다실 창사이로 계속 비가 내리고 한라산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 쉽게 한라산을 보려고 한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느새 지나간 2시간. 스님의 살아있는 법문은 듣는 이의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잡힐 것만 같은 느낌. 그러나, 그 느낌 그대로 말씀을 글로 옮기기엔 너무도 역부족인 듯하다. 하고자 하신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행어나 스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는지... **定慧社**



법성료

날날이 분해되는 거기엔 법성료라 불릴만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저 술한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실체로써 법성료인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멸할 수도 없습니다.
한동안 법성료라 불리웠던 나는
이제 인연이 다해 그곳에 없지만
저 뜰 앞의 꽃이며 꽃을 흔드는 바람이며,
달빛이며 그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사진 · 한운 | 글 · 응진 <11호>

나 아닌 것 같은 나와 나인 것 같은 나

희일 | 〈창간호〉

삼각형의 한 빗변 오르기
빗변에 기댄 사다리오르기로 대체함
정점은 너무 좁아 엄지발가락으로도 딛고 설 수가 없다.
추락!
하면 이미 심연의 진흙에서
밑변의 광활함과 매끄러움에
섬뜩하다
256 칼라 모니터 위에 나타난 나는, 막
튀어오른다. ↑키를 때려라 세계 더 세계
나는 정점을 넘어 저편
빗변의 등에 등으로 떨어진다
고고고고고고고고
언제까지 '뽀' 로울까
더듬는다
사방으로 향한 방향타들
無心이 되지 않으면 좀체 오르기 힘들다
빗변과 사다리를 올라
進一步하여야 함에도 끝내
오르지 못하고 다시
쳐박히는 밑변에서

‘다양한 색깔을 지정하여 脫出하라!’

메신저는 금방 사라지고 다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思量分別 말라)
나는 잊어버린 것마저 잊어버리고 다시 튀어오른다
손은, ↑←→↓ 키들 사정없이,
빠르게, 두들겨, 강요하여, 나를 좌,우,앞,뒤로 심지어 화면 밖으로 튕긴다
△(추적자)는 나를 짐계질하여
데리고 간다 아!
대공분실 같은 킁킁한 방으로
홀로 남겨두고 나가버린다.
짼! 짼! 짱!

다음광경으로, 손은 부지런하다
1234 · · · · ·
ABCD · · · · ·
키 키 키 키들
지문 위로 지문이 찍히고 찍히고 찍히고
혐의와 혐의와 혐의를 벗지 못하고
△를 재빠르게 추락시킨다

‘정점에 선 나를 찾으라고?’

삼각형의 한 빗변을 내려가기
미끄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내려가기
숨막히는 밑변의 교차점에서
완전히, 생의 방향을 달리할 때까지
최후까지 · · · · ·

아! 不能見如來不能見如來不能見如來不能見如來不能 定慧社

山

심법尋法 | 치문

대규모 원정등반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비싼 일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산료와 화물 운송비이다. 특히 두세 달 가량분의 식량과 무거운 장비들을 모두 항공 화물로 부치는 까닭에 화물 운송비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물론 가난한 등반가들은 최대한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대부분의 식량은 건조식품으로 채워지고 의류 또한 특수소재로 제작된 것들만 선택된다.

장비 제조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대부분의 장비가 초경량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등반가들은 고작 10g이라도 더 가벼운 카라비너¹⁾나 아이스툴²⁾ 등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식량과 장비를 선택하고, 일일이 무게를 달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과정에 모든 원정 대원들이 일주일가량 밤을 꼬박 새우며 매달리기 일쑤이고 출발 당일 날은 한여름 무더위 속일지라도 운송비와 오버차지³⁾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이중화를 신고 고산용 내의부터 우모복⁴⁾까지 겹겹이 끼입은 채 손에는 피켈과 배낭을 줄줄이 들고서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도 민감한 ‘무게’ 라는 굴레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품목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책’이다. 원정 대원들을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은 얼마든지 항공화물용 상자 안에 집어넣을 수 있으며 대원들 모두가 다함께 책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한다. 혹자는 그런 식이라면 식량이나 장비 무게를 줄이기 위해 들인 노력이 허무해지는 것 아니

나며 차라리 그 쪽에 보다 더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말라야의 눈부시게 빛나는 흰 산 아래서 원정 대원들과 현지 고용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나 문명을 접하지도 못한 채 두세 달을 지내야 하는 것은 미칠 듯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책은 길고 지루한 베이스캠프 생활의 몇 안 되는 오락거리 중 하나이자 자칫 긴장되고 날카로워지기 쉬운 원정 대원들 사이 관계의 윤활유가 되어 원정 등반 전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내가 시인 조태일을 처음 만난 것은 2004년 봄. 홍길 형과 함께 떠났던 나의 첫 원정등반인 ‘알룽캉’ (8508) 원정 당시 그렇게 가져간 책들 가운데서였다. 그 무렵 나는 등반이 주는 즐거움에 한껏 빠져있던 젊은이였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운동이라고는 전혀 할 줄을 몰랐었고 특히 구기 종목들처럼 누군가와 함께 몸을 부딪치며 하는 운동은 질색을 했었다. 하지만 등반만큼은 달랐다. 큰 근육도 민첩한 운동신경도 강요된 남자다움도 필요 없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는 사람도 소리치고 다그치는 사람도 없었다.

누구나 함께 줄을 묶으면 그 순간 서로는 서로의 목숨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고 아무런 말이 없이도 줄을 통해 전해지는 서로의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에 바위나 얼음에 붙는 그때만큼은 오롯이 혼자였다. 오름짓이란 그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철저하게 나 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티끌만한 돌기를 딛고 선 발가락 끝의 떨림이 쿵광대는 심장을 휘돌아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팔을 지나 간신히 홀드를 붙잡고 있는 손가락 끝마디로 전해진다. 다음 홀드⁵⁾가 너무 멀어 보인다. 마땅한 발 딛을 자리도 없다. 내가 저걸 잡을 수 있을까? 잡아야 한다.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잡을 수 있을까? 솟아오르는 온갖 생각과 두려움 사이를 비집고 가만히 집중을 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움직임들이 가만히 멈추고 사라져버린다. 바로 이때다. ‘나’ 라는 것조차 사라져버리는 바로 이때 발을 내딛고 팔을 뻗어 크릭스⁶⁾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등반의 끝에는 언제나 환한 웃음과 묵묵한 믿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가슴 넓은 벗들이 있었다.

-
- 1) 등산 용어로서, 암벽 및 빙벽 등반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비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스프링이 장착된 개폐구가 있는 고리 형태의 장비, 가장 널리 유용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장비로써 하겐 머리 부분의 구멍에 거는 듀랄루민 합금 개폐 고리가 있다, 이 고리를 자일이 지나가게 된다. 확보의 각 요소를 서로 연결하는 데 쓰인다. O형, D형, 변형 D형, 신 D형 등이 있다.
 - 2) 빙벽 등반시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통칭한다. 대표적인 장비로는 피켈, 12발 아이젠, 아이스 스크류, 아이스 하겐 등이 있다.
 - 3) 항공기 탑승 시, 기내 휴대 수화물을 제외한 위탁 수하물의 무게가 규정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
 - 4) 닭이나 오리, 거위털을 채워 넣어 만든 옷을 말한다.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복원력 등으로 인해 혹한기 등산의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5) 암벽면에 손으로 잡거나 발로 디딜 수 있는 바위면의 돌기 부분을 말한다.
 - 6) 등반 루트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지점을 말한다.

그렇게 산에 들고 바위를 오르는 속에서 나는 ‘완전한 함께’ 임과 동시에 ‘완전한 혼자’ 임을 발견했고 ‘완전한 멈춤’ 속의 ‘완전한 움직임’ 을 느낄 수 있었다. 우주 어디에도 둘로 나뉘지는 것은 없었다. 매끄러운 슬랩⁷⁾ 페이스⁸⁾의 인수봉에서도 무시무시한 아름다움을 지닌 토왕성⁹⁾빙폭에서도 그랬고 사방천지가 온통 흰색뿐이던 한라산 장구목 설벽에서나 빼곡한 황금소나무 숲 너머로 끝 간 데 없이 산줄기들이 뻗어나가던 울진 소광리에서도 항상 그랬다. 나는 ‘자유’ 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 어느 한쪽 편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혼이 되고 싶었다. 그 사이 나는 조금씩, 조금씩 ‘삶’ 과 ‘죽음’ 이 ‘나’ 와 ‘너’ 가 둘이 아니라는 발견,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발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인 조태일과의 만남은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날은 사흘간 계속되었던 캠프1 구축과 장비 수송 작업이후에 주어진 꿀 같은 휴식일이었다. 여느 휴식일과 다름없이 나는 강렬한 히말라야의 태양광선으로 한껏 달궈진 텐트 안에서 하릴없이 뒹굴거리고 있었다. 옆에서는 형들이 솔라판넬로 충전한 노트북으로 한창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심심해진 나는 텐트 안에서 돌아다니던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라는 책을 집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휘릭휘릭 책장을 넘기다 마주친 것이 바로 시인 조태일의 ‘소멸’ 이었다.

소 멸 - 조태일

산들과 잠시나마
고요히 지내려고
산에 오르면

산들은 저희들끼리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
한 점 티끌도 안 보이게
나를 지운다.

7) 등산 용어로서, 발바닥의 마찰을 이용하여 오를 수 있는, 표면에 요철(凹凸)이 없고 매끄러운 경사를 이룬 넓은 바위. 마땅한 홀드(hold)가 없으므로 슬랩을 등반할 때는 등산화 밑창으로 마찰을 얻고 손바닥이나 손을 밀착시키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등산에서, 크고 굴곡 없이 밋밋한 암벽이나 경사면을 말한다. 시계가 넓기 때문에 루트를 잡기 쉽지만 고도감을 잡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9)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다. 신광폭포(神光瀑布)·토왕폭(土旺瀑)이라고도 한다.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외설악의 칠성봉(七星峰:1077m) 북쪽 계곡 450m 지점에 있다. 설악산 신흥사 동남쪽으로 석가봉, 문주봉, 보현봉, 문필봉, 노적봉 등이 병풍처럼 둘러싼 암벽 한가운데로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늘어 놓은 듯하다. 겨울철에는 산악인들이 빙벽훈련장으로 이용한다.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담폭포를 지나 쌍천(雙川)에 흘러든다.

그것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충격과 감동으로 온 몸에 전율이 일었다. 지금도 이 시를 되뇌노라면 말로는 형언키 어려운 감정과 여운들이 다시금 울려날 정도이니 말이다. 그 날 이후 소멸이라는 시는 원정이 끝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하나의 화두가 되었고 다시 다른 산을 향해 떠나는 무수한 발걸음 속에서도 늘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귀국한 뒤 나는 난생 처음 시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삶을 살아온 이이기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시인 조태일. 내게는 언제까지나 소멸의 시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국토와 식칼의 시인인 그는 송광사와 가까운 곡성 태안사에서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나 절집에서 자라났고 후일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투쟁의 역사를 살다간 인물이었다. 육척거구에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는 그의 이미지는 시인이라기보다 산적에 가까운 것이지만 소멸을 비롯한 그의 시 세계 면면히 흐르는 불성은 승려의 아들로 태어나 절집에서 자라는 그이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가 노래하는 시들은 어린 시절의 내게 큰 충격과 질문을 던져 주었고 그와의 만남은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진 귀한 인연들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금 그의 시들을 되새겨보면 시인 조태일 그는 나를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 들인 귀한 인연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지난 가을 동안거 결제를 앞둔 방학 때 치문반 도반스님들과 함께 곡성 태안사를 다녀왔다. 도반스님들께는 태안사가 신라시대 혜철국사께서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동리산문을 여신 곳이며 근대의 선지식이셨던 청화스님께서 머무셨던 곳이라며 꼭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내심 시인이 태어나 자란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바람이 더 컸었다. 태안사는 생각보다 훨씬 외진 곳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절이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경내를 둘러보고 있자니 시인의 호쾌하고 자유로운 쓸쓸한 노랫소리를 어렴풋이 더듬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에 대한 추억을 모아둔 조태일시문학기념관을 둘러 그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송광사로 돌아오는 길에서 문득 시인 조태일과 처음 만났던 그 때가 다시 떠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그 당시 우리가 베이스캠프를 쳤던 알룽빙하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등반하기 어렵기로 손꼽히는 봉우리인 자누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솟아 있었다. 어느 날 정오 무렵 식당 텐트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작스레 울린 우레와 같은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보니 빙하 건너편 자누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광경은 정말이지 경이로웠다. 눈사태는 파괴적인 위력을 과시하며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쓸어내리고 있었고 자욱하게 번져 오르는 눈안개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눈 앞에 보이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때 나는 보았다. 산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서 언제나 한 점 티끌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定慧社**



포토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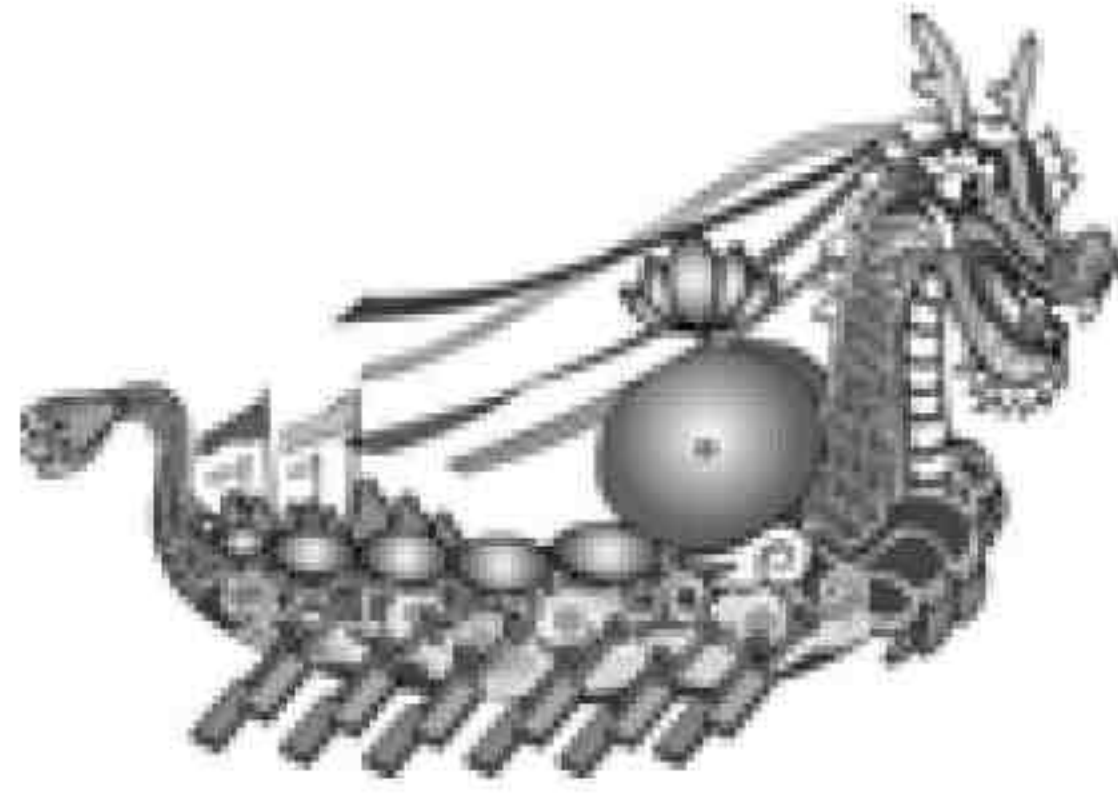
만장

생사가 돌 아니라고
거부하듯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나부껴라
「나 갈란다」 한 마디
미처 남기지도 못하고
저리 펴려이는가
바람은 어제부터 흔적도 없는데

사진 · 글 | 한운 <6호>

반야용선 般若龍船

진관 | <18호>



내가왔소	내가왔소	할아버지	내가왔소
고향떠난	빈강산에	내가왔소	할아버지
이몽룡이	나타났나	어사모는	삭발이요
김삿갓이	유람왔나	비단옷은	누더기다
선달그믐	칠흙속에	장작불이	웬일이며
신혼초야	불밝혔나	동네사람	다모였네
감나무를	돌아서도	누렁이는	간데없고.....

숨을 곳이 없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은 장독대에도 마루 밑에도 숨을 곳이 없었다. 그저 웃놀이할 돈 달라고 짓궂게 보채는 동네 일가치의 농취인 상여가를 들을 수 밖에.

어제였구나. 전화로 전해진 할아버님의 임종소식. 많은 날들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건만, 못 사람의 장례식 모양 평상심을 가지려 했지만, 그 역지가 도리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5년만의 귀가는 더욱 서둘러졌으며 여수에 도착해서야 삭발목욕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할아버님의 삶에 욱되지 않는 모습으로 담담해야겠다고 자기최면을 걸었다.

청훈편 “영가시여! 이 세상 오셨을 때는 어디로부터 오셨으며 이 세상을 떠나실 적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옛 어른의 말 씀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이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실다운 본체가 없다.’ 고 하셨습니다. 나고 죽음이 구름 같다고 하셨건만 영가가 가신 뒤 이처럼 참을 수 없는 오열만이 천지에 사무치나이다.

진관 “영가여 어디에 계십니까.” 88년의 삶을 “사람 기다리기 왜이리 힘드냐.”라는 유언을 남기게 한 못난 손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 한잔 올리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요령을 흔들어야 하는 손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가여 보이십니까? 삭발염의한 조그마한 아이가 보이십니까?”

세수편 이제 손을 씻으시니 이 도리를 분명히 잡으시어 시방세계의 불법이 손바닥 안에 소상하실 것입니다. 금일 영가시여 나무에 올라가가지 끝에 매달리는 일, 신기할 것이 못 되나니, 천길 벼랑에 매달렸다가 손을 털어야 대장부랍니다. 영가시여 그동안 관념을 모두 버리시고 법신의 높은 경지로 눈길을 돌리소서.

진관 영가여 죄송합니다. 사람은 자기 무게만큼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나 봅니다. 따스한 품을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가고자 했던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희망들이 산산이 부서져, 당신의 가슴에 못으로 박히는 걸 알면서도 차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착군편 영가시여 지, 수, 화, 풍 四大로 색신이 이루어질 때 이 자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四大의 색신이 무너질 때에도 이 자성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모두 허공의 꽃과 같거나 원수와 친구와 죄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 모두 없으니 평온하고 걸림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마음이 변하여 나타난 것이요, 들쭉 날쭉한 현상계가 모두 주인공임을 아옵소서.

진관 영가여 기억합니다. 탁주와 청주를 흔쾌히 드신 날이면 읊조리던 시조가락이며, 얼굴을 부비시던 수염의 감촉을, 마지막 삶을 문집으로 정리하셨던 외할아버지의 출판일 날 거나하신 모양으로 “내 사십이 되어서야 지계를 졌느니라.”며 “니 애비 도울려고 그때서야 내가 지계를 졌단 말이다.”라고 하시던 그 모습을. “고향을 알아야 한다.”고 부모님을 따라 전학 보내지 않고 자신 밑에서 통학을 시키실 때 그 엄함을.....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관편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소서.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은 모두가 허깨비 같아서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육진에 의해 분별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사대가 갈 곳으로 돌아갔으니, 무엇이 어떻게 화합합니까? 모든 부처님 세계는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과거, 현재, 미래에 온통 가고 옴이 없습니다.

진관 영가여 무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없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그 생각마저도 없어야 합니다. 5년간 줄창 앉아 “내가 없다, 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가여 내가 보이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있는 분이 참입니까? 저 앞에 누워 있는 분이 참입니까?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둘다 참이고 둘다 그림자입니까? 이 몸 사지를 찢어 허공에 뿌리면 무아입니까? 눈 한번 감으면 무아입니까? 모를 일입니다. 이 몸이 멀쩡한데 없다고..

그렇게 시다림을 끝내고, 밤새워 염불을 하였다.

상여가 떠날 쯤 법사비라고 내미는 어머니의 봉투를 마지막 여비로 할아버님께 드렸다. 피곤하다. 어색하던 동네어른들의 시선도 고향이라는 감회도 없다. 문득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라는 생각을 해 본지 꽤 오래만인 것 같다. 출가자의 길이 당연하고 필연적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냥 그 길을 걸어 왔는데, 염도 하지 않은 채 나를 기다린 할아버님의 주검 앞에서 문득 내 자신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내가 ‘너가 진정 수행자냐고 혹 위선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고 물어 보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온통 거짓과 위선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 속에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올 수 있다는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그 누구보다도 이 길을 간절히 원하는 내 영혼의 소리를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一生愁中過 일생을 시름 속에 보내다 보니
明月看不足 밝은 달을 바라보기 부족하였네
萬年長相對 이제 길이 누워 상대할 것이니
此行夫爲惡 이 길도 이미 싫지 않구나.

(조선 시대 선비 이양연의 자작 만장) **定慧社**

물든 마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21가지의 더러움으로 물들이고 더럽힌 사람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진다.

성내는 마음, 남을 해치는 마음, 게으른 마음, 들떠있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꺼리는 마음, 번민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
남에게 미안해 할 줄 모르는 마음, 허황한 마음, 간사한 마음,
속이는 마음, 다투는 마음,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잘난 체 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탐욕스런 마음 등이다.

이러한 마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좋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험악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깨끗한 천으로 만들었던 옷이
먼지나 때로 찌들고 얼룩이 저서 다시 밝은 색으로 물들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수행자는 자신을 살펴보아 더러움에 물든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남의 행복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악함이나 죄로 물들었을 때는
물에 들어가 아무리 목욕을 해도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충만할 때 마음의 때는 씻겨지는 것이니라.”

증일아함경 제6:이양품5:〈2-573하〉

수정범지경 〈증일아함경제23:1-575중〉

범지계수정경〈1-843하〉

Vatthupamasutta:〈M.N. I,p-46〉

中道

도법道法 | 사교

中道란 불교의 근본 원리로써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中道の 道이다. 불교의 모든 이론과 실천적 수행은 中道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중도는 실천적 중도와 사상적 중도의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천적 중도의 경우 고통의 수행인 고행과 쾌락의 수행인 三昧의 양극단을 모두 비판하는데, 사상적 중도에서 비판하는 것은 흑백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우리 생각의 양극단이다.

우리의 생각은 有를 부정하면 無인 줄 알고, 같음(一)을 부정하면 다름(異)인 줄 알고, 이어짐(常)을 부정하면 끊어짐(斷)인 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흑백 논리적인 생각은 이 세상의 참 모습과 무관한 우리 생각의 작동 방식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緣起的으로 얽혀 있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처럼 주관인 我와 객관 세계인 法으로 二分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을 흔히 호모 사피엔스 또는 호모 로쿠엔스라 하여 사유하는 존재 또는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고 불러 다른 동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2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사유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여타의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오늘날 다른 동물들보다 자연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존립하게끔 하였다. 특히 언어와 文字의 발명은 인간의 사유 능력을 체계적이고 조직화하였으며 인간의 사유 능력으로 그 밑바탕에 언어와 文字가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인류의 수천 년 혹은 알려지지 않은 고대 文明의 수만 년 역사에서 文字에 의한 정보와 사상의 기록의 축적은 과거의 인류 생활의 총체적인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文明이나 文化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文明이나 文化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언어와 文字가 그 밑바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들 인간은 諸法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의미 혹은 개념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나 개념을 法이라고도 하는데, 法은 인간 서로간의 공통된 同一한 의미의 약속이다. 예로써 책상이란 단어를 보면 누구나 책상이란 책을 얹어 놓고 공부하는 책상이라고 의미를 인식하게 되며, 서로간의 언어와 문자의 소통에 의해 일치된 의미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미나 개념을 규정해 놓은 단어가 항상 고정 불변의 동일한 의미로써 사용되지

못하고 시대가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또는 사용하는 사람 자체에 있어서도 각자가 살아온 경험이나 業이 다르므로,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며 다르게 의미나 개념이 인식된다는 점이다. 단어의 개념이 사람에 따라 相異하게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되어 그 개념의 테두리가 일정치 않게 되면, 서로 간에 의미의 소통에 불일치를 초래하여 오해와 갈등으로 分別의 苦를 낳게 된다.

언어와 문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전달하며 표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각자의 청정무구한 본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우리는 개념화된 언어에 의해 分別하지 않으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어떠한 생각이나 사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도 말로써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我가 존재하고 바깥에 객관 대상인 法이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말할 때, 어떤 존재(自我)가 어떠한 작용을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도 한다. 항상 主客 그리고 能所로 二分化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예로써 ‘바람이 분다.’ 라는 말에서 ‘바람’ 과 ‘분다’ 라는 개념은 서로 상대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바람’ 에도 火의 의미가 있고, ‘분다’ 에도 火의 의미가 있어 火이라는 작용이 중복되어 있다. 술어의 의미를 주어 속에 내포시킬 수도 없고 주어에서 배제시킬 수도 없다. 즉, 법계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분다’ 는 한 가지 현상은 火이라는 한 덩어리의 사건만 존재할 뿐이지 바람이라는 주체가 따로 있고, 火이라는 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언어로써 표현하자니까 二分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언어의 표현은 언어 자체에 의미의 모순을 내재하고 있으며 緣起하는 法界와는 무관한, 허망한 分別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언어적 표현이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즉, “내가 존재한다.”, “죽음과 삶도 존재한다.”는 등의 모든 말들을 實體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애초에 우리의 허망한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된 고민이며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허상이며, 그 허상에 속아 고민하고 고통 받는 것이다. 마치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해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부처님께서 成道 후에 깨친 첫마디는 “나는 不死를 얻었다.”인데 不死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非死 혹은 無死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다(非死) 또는 죽음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無死)는 점을 깨달으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까지는 죽음의 실체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죽음이란 애초에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에는 개념이 있으며 사람마다 각자 조금씩 다르게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사유와 생각은 언어의 개념이나 의미를 식량으로 삼아서 먹고 살며, 그 의미의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실체가 없으며, 緣起的인 法界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分別에 의해서 가위로 자르듯 조각조각 설정한 개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으로 뭉쳐진 덩어리인 우리의 마음도 역시 연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分別心이라고 볼 수 있다. 分別心에 의해서 我와 法으로 세상을 나누고 그 바탕 위에서 모든 현상을 分別的으로 파악하는 게 중생의 삶이므로 제법의 실상인 연기하

는 세상과 어긋나 있으므로 모든 고통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思想的 中道에서 추구하는 바는 사유의 양극단 즉, 언어의 양극단을 비판하며, 말이나 언어의 실체가 空하며, 결국 우리의 사유의 세계도 空함을 자각하여 이 세상이 연기적으로 한 덩어리임을 자각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용수보살은 中觀에서 사유의 도구인 언어의 分別的인 모순을 反논리에 의해서 論破하고 있다. 예로,

마음이란 단어에서, 불교와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이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 왜냐면 마음이 아닌 것이 있어야만 그와 분별해서 마음을 따로 이야기할 것인데, 모든 게 마음이므로 따로 마음이라 부를 것도 없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막대기가 길다.”라고 할 때 그보다 더 긴 막대기를 옆에 놓으면, 원래의 막대기를 “길다.”할 수가 없다. 즉, 길다 짧다는 말은 상대적일 뿐 절대적이지 않고, 길다는 말 자체의 자성이 없고 空하며, 길다와 짧다는 연기적으로不二하며 이것이 바로 中道이다. 마음 역시 이와 같아 모든 것이 마음이며, 또한 그 어떠한 것도 마음이랄 수 없다.

中觀적인 측면에서 자성이 없이 空하므로 절대 부정하며 화엄의 측면에서 一即一體이므로 절대 긍정을 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측면에서 각자 개인에 따라 분별적인 마음으로 나타난다.

부처, 空, 我, 중생 등의 말도 모두가 위의 예와 같다. 모든 것이 부처고, 모든 것이 중생인데, 굳이 부처고 중생이고 할 것도 없다. 왜냐면, 부처라고 또는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와 구분(분별)해서 부처니 중생이니 이야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밥이란 개념은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만 흡수하고 배설되는 것인데 그 뿐만 아니라 숨을 들이쉬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몸으로 접촉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등 모든 것이 밥이라 할 수 있다. 즉, 一切가 밥이다.

똥이란 개념은, 무언가 재료가 들어가서 소화된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제품, 건물, 책상, 몸 등 일체가 모두 똥이다. 모든 개념은 엄밀히 그 의미를 규정하려고 들어가면 그 개념의 테두리가 사라진다. 일상적인 分別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의미의 끝까지 추구해 들어가면 언어가 망가진다. 分別의 세계가 파괴된다. 즉, 부처 = 중생 = 마음 = 空 = 똥 = 밥이 되며, 선어록에서 언급되는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分別의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오히려 전부 가짜이고 선어록에서 쓰는 分別이 무너진 말들이 오히려 진짜가 된다.

마음을 절대 긍정이란 측면에서 一切 모든 것이라 했을 때, 이는 마음과 물질이라는 二分法的 사고를 破하여 연기를 드러냈을 때만 타당한 것이지 一切唯心造가 독단이나 도그마에 빠질 때는 이 또한 중도가 아니다.

반대로, 마음을 절대 부정의 측면에서 自성이 없으며 空이라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다. 空에 빠지

면 惡取空으로 중도가 아니다. 그래서 공이라 할 것도 없다. 공공空空하여 악취공을 비판하며 空空에 빠지면 空空도 역시 공하다 하여, 金剛三昧經에서는 空空亦空을 설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에 대한 규정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앞의 사고방식을 破하는 것이 참된 진리이다. 끊임없이 마음이 어떤 고정된 관념에 머무는 것을 경계한다. 破邪가 바로 顯正이다. 뭔가 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眞諦는 내용이 아니다. 작용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발언은 모든 것이 自性이 있다는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시되었을 때만 타당하다. 禪家에서 언급하는 不立文字, 開口卽錯, 放下着, 마음을 비워라, 是非를 가리지 마라 등의 말도 모두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진 말이지만 그러나 先行하는 分別心을 破하기 위해서 언급되었을 때는 存立의 가치가 있다.

선사들은 선어록에서 부처님은 45년간 橫也說 豎也說하셨다고 한다. 즉, 橫說豎說 하셨다는 뜻이다. 이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어떤 때는 無我를, 어떤 때는 有我를, 또 어떤 때는 無我이면서 有我를, 또 다른 때는 無我也 아니고 有我也 아니더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중생들이 가진 偏見을 깨뜨린 對機설법이며, 中道설법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고정된 교리가 없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내용이 따로 없으니까 覺자체도 내용이 없다. 그 전까지 있었던 苦만 滅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원래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生도 死도 원래 없었고, 我와 法도 없었는데 중생들은 착각해서 있는 줄로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원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근심하고 고통 받고 고민하다가 꿈에서 깨어 보니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도의 측면에서 본 반야공과 화엄의 측면에서 본 一卽一體인 절대부정과 절대긍정이 緣起的으로 不二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즉 分別이 깨졌다고 해서 分別이 깨진 그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空病이다.

세속에서 살아갈 때는 반야공을 얻은 사람도 철저하게 세속에 맞게 그때 그 순간에 순응해서 分別的으로 살아가야만 올바른 삶이라 할 수 있다. 세속에선 緣起의 세계가 전체로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용수 보살의 「대지도론」과 중국의 三論學의 토대를 마련한 고구려의 승랑스님도 中觀의 공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 그 자체가 아니라 二諦가 핵심사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二諦는 眞諦와 俗諦를 의미하는데 중관의 空性은 진제에 해당되며 이러한 진제는 진제 홀로만은 불완전하며 속제의 가르침과 병행되었을 때만이 진제로서의 완전한 진리를 발휘한다.

용수 보살은 中論 제 24 觀四諦品에서 “부처님들의 교법은 2가지 진리에 의지한다. 세간에서 행해지는 진리와 승의로서의 진리이다.”

眞俗二諦說이 中觀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속제는 우리의 분별에 입각한 가르침이고, 진제는 우리의 분별을 파기하는 가르침인데 俗諦를 예를 들면, 일반 상식적인 윤리 도덕, 戒를 지키는 것과, 세속적인 선행, 보시, 인욕 등을 의미하는데 속제를 떠난 진제는 惡取空이며, 막행막식이며, 邪見에 빠진 폐인이 되고 만다. 진제를 떠난 속제는 보시하고, 戒만 지키는 정도로, 해탈은 못하고 복을 쌓고 天上에 태어나는 정도

이다.

無我設은 진제이지만 자아와 윤회를 말하는 것은 속제이다. 속제에서는 生死도 있고 동서남북 방위도 있지만 진제에서는 生死도 없고, 동서남북 방위도 없다.

진제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선도 악도 없으며, 행주좌와가 다 禪이므로 선을 닦을 것도 없다고, 하지만 속제에서 우리는 부처가 못 된 중생이고,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해야 하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열심히 선을 닦아야한다.

중관 논리를 통해 제법의 실상인 연기를 자각함으로 인해서 윤회와 열반의 경계가 무너지고, 번뇌와 보리의 경계가 무너지며,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어지고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는데 이는 모두 진제의 일일 뿐이다.

세속의 세계에서는 엄연히 속제가 존재하므로 속제에 의지해 살아가면서 진제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二諦의 구분에 무지한 사람은 무차별적인 진제의 가르침을 속제와 병치시킨다. 윤회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는 경문을 핑계로 답아 열반을 추구하지도 않고, 중생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경문에 근거하여 자신이 부처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번뇌와 보리에 차별이 없기에 번뇌를 除去하려 하지도 않고, 善과 惡을 分別하지 않기에 惡을 행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空見으로,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邪見일 뿐이다. 中論 제 13 觀行品에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空性이란 갖가지 世界觀에서 벗어남이라고 勝者¹⁾들에 의해 敎示되었다. 그러나 空性의 世界觀을 가진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空性의 가르침을 아예 모를 경우 俗諦를 지키면서 그나마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탐욕과 분노 등의 감정적인 煩惱가 남아있는 사람이 세속의 分別을 모두 論破하는 空性의 가르침을 어설피게 수용하면 입으로는 無分別의 空性을 말하지만, 그 행동은 막행막식인 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空性의 가르침은 無始無終의 輪回苦를 벗어나는 지름길이지만 이를 오해할 경우 가치 판단을 상실한 폐인이 되어 地獄苦를 면치 못한다.

中論 제 24 觀四諦品 10계에선 만일 俗諦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 1 義諦를 얻을 수 없다. 제 1의제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 1의제는 모두 언설에 의존한다. 언설은 바로 세속의 것이며 分別로써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께서도 45년간 자신의 깨친바 진리를 언사에 의해 설하셨다.

空見은 二諦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며 이제 가운데 오로지 진제만 추구함으로써 공견에 빠진 것이므로 속제에 충실함으로써 공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불법의 수행을 완성한 사람

유의할 점은 진제와 속제는 고정된 내용을 갖지 않는다. 초기 불교에서 자아를 의미하는 아트만은 속제이고, 그런 自我가 없다는 無我是 眞諦이다.

그러나, 무아는 아트만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무리가 생기자 무아가 부정되고 중도의 가르침이 베풀어진다. 이 때 무아는 진제에서 속제로 전락하고 “有我도 아니고 無我也 아니다.”라는 中道가 진제로써 제시된다. 진제는 비판하는 작용이지 어떤 내용을 갖는 도그마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中道에 집착할 때는 중도조차 버려야 한다. 끊임없이 마음이 어느 하나의 관념에 머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대개가 有가 아니면 無의 양극단의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교법을 說하실때도 크게 3時로 구분해서 說하셨다. 有를 설한 아함부, 空을 설한 반야부, 空과 有를 雙으로 드러낸 中道를 설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그것이다.

불교 교리 전체를 보면 교리 간의 내적인 상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충은 中道の 眞俗二諦說에 의거하면 解消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불교 수행법은 철저하게 中道지향적이다. 止觀수행법을 볼 것 같으면 止는 動的인 번뇌인 散亂心이나 掉擧를 다스리기 위한 靜的인 수행이고, 觀은 靜的인 煩惱인 昏沈이나 無記를 다스리기 위한 動的인 수행으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게끔 中道를 지향하고 있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의 구슬 모두를 꿰는 줄이 바로 中道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삶 자체도 출가 전의 생활은 樂 그 자체이고, 출가 후의 생활은 苦의 연속이었으나 마지막엔 不苦不樂의 수행을 선택하셨다. 衆生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偏見에 치우쳐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견해만을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衆生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業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깨닫기 전까지는 緣起法을 완전히 自覺할 순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緣起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不斷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테두리를 깨뜨려야만 한다. 세속법을 관념이나 개념 또는 정보를 끊임없이 축적하는 智識적인 삶을 追求하지만, 出世間法인 佛法은 우리가 世世生生동안 아뢰야식에 쌓아온 관념이나 개념의 틀을 끊임없이 깨뜨려서 我와 法이 不二한 緣起的으로 한 덩어리인 法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知慧로운 삶을 追求하는데 佛法의 목적이 있다.

금강경에서 應無所住 以生其心이라고 언급했듯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은 속박에서 벗어나 항상 자유로울 것이며 그 어떠한 法에도 얽매이지 않고 萬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바로 中道 그 자체를 俱現한 삶이라 할 것이다. 定慧社

세 번째 겨울

향성香城 | 사집

너무도 더워 속옷이 다 젖고 수한 법복이 다 젖은 연후에 공양의 마지막 순서인 발우를 올리고 합장 반배 하는 죽비 소리를 듣고 탈의한 후에 수각장으로 달려 들어가 찬물에 손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다. 며칠전 갑자기 추워져서 내복바지만을 꺼내 입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돌아보면 세월같이 빠른 게 없다더니 새삼 실감이 든다. 끈기와 설렘을 가슴에 느끼며 걸망을 짊어지고 송광사 강원을 온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뒤돌아 생각하면 그 동안의 철없는 나의 강원생활이 주마등과 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래도 세월이 약이랬던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야 강원생활이 무엇인지 대중생활이 무엇인지 왜 어른 스님들이 기본교육기관 만큼은 꼭 강원로 가서 장관 때 좀 묻히라고 한 것인지 알 것 같다.

내 자신 스스로도 이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야 어떻게 해야 대중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강원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의 강원 생활에서 나의 못난 점과 잘난 점과 튀어나온 것이, 맞고 쓸리고 씻기고 두드려져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도 다듬어진 것 같다.

시작이 반이랬던가! 아직 반환점도 채 돌지도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보내온 모든 일과 시간과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나의 강원생활도 원만 회향할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 앞에 한 점 부끄럼없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강원에서 나와 같이 수학하는 모든 강원 대중들과 나의 도반들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원만 회향할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 전에 빌어본다. 定慧社

치문반 수행

송산松山 | 치문



이제 치문반의 마지막 동안거를 보내고 있다. 처음 입방할 때와는 도반들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물론, 나 자신도.....?

교통정리를 하듯, 신호등 대기하듯, 또는 2차선 도로, 4차선 고속도로, 비포장 길 등 나름대로의 주행 방식으로 달려 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환경이야 어떻든 운전은 내가 한다.

잘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진 차 마냥 서 버린 도반! 펑크난 차가 기우뚱거리는 모습처럼 넘어진 도반!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저단 기어로 달리는 도반 등등등. 참고로 나는 어디에 속할까?

어찌 됐든 아직도 우리 치문반은 쉽 없는 주차 싸움과 속도 대결, 주행 방식의 자랑, 비판, 좋은 차를 타려는 모습에서 허걱대고 있다. 이 모습이 정상이다. 드러났건 말았건 모두가 불연속성이다. 즉 연기에 따른 생주이멸이요, 성주괴공이기에! 또한 환상적인 수행자다운 모습을 잔뜩 기대했던 도반들은 매우 실망도 하여 푸념어린 투정을 하기도 한다. 언어의 순화에서부터, 청결, 존중 등 그리고 걸모습의 자태, 꼭 위의라고 할까하는 것 까지 모두가 무상한 것인 줄 알면 입을 다물고 나는 스스로 행하면 된다.

이 우주 법계가 실상이며 진여이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혹시 6적 때문에.

미친 육적六賊놈!

그리고 탓하기는 나 외의 밖의 것들을 향해서 쏟아 붓는다.

‘자기 자신의 눈 밑에 댕돌은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본다.’

이제 그래도 조금씩 누렇게 익어가는 도반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함이 생긴다.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시절인연이 구족해야 한다.’ 라고. 끝내 고치기 힘든 습을 가지고 있는 도반도 있는 것 같은데, 부디 보림保任하시고, 사상차를 버리고 자비차를 타고 다 같이 달려 봅시다!

처음과 많이 달라진 멋있는 도반도 있는데 더욱 한 멋 하시오! -Good.

끝내 묵묵한 도반 역시 짱!

여전히 입만 보살인 도반도 파이팅!

바로 현재 이 곳 여기가 불각지佛覺地인데 어디를 가려 하오!

치문반 도반 스님네들 모두 힘내시고 하나 됩시다!

호탕하고 당당하게 이 순간 최선을 다합시다! 定慧社

나는 POLICE

연성 | <20호>

나는 POLICE

이놈은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르며 때론 동정을 호소하는 척, 타협을 벌이는 척 하다 이내 상대를 굴복시키지.

나는 POLICE

이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며 시달려왔는가? 처음엔 이놈에게 놀아나는지조차도 몰랐어. 항상 내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조그만 틈만 보였다 싶으면 이내 파고 들어와 나를 조종하려 들거든.

나는 POLICE

이놈 때문에 시달린 수많은 날들. 이놈을 잡으려 몇 겹 생을 달려왔는지 몰라. 흘린 피와 눈물만 해도 수 미산을 덮고도 족히 남을 거야.

나는 POLICE

이놈은 너무나도 교활한 놈이야. 잡으려 하면 어느새 알고 나를 오히려 이용해 먹거든. 이놈은 내 생각을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든 일으키기만 하면 그걸 미끼로 먹고 살지. 착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기쁜 마음, 두려운 마음, 죄다 미끼로 던져놓고 내가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거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이놈에게 놀아난다구. 나는 빌었어.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기필코 잡아 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잡는 전문기관에 들어왔고, 이곳을 들어오려면 시험이 있더군.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 받고 전선에 투입시키는 거지.

나는 POLICE

이놈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어. 용맹심을 불사르기 위해, 항상 그놈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머리를 뺨뺨 꺾고 혹시 그놈 눈에 떨까 싶어 회색 옷을 입고 다녀. 너무나도 급할 땐 날아가기도 해야겠기에 슈퍼맨처럼 갈색 망토를 걸치기도 하지.

나는 POLICE

그놈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목적 달성을 하느냐? 그건 아냐. 그놈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놈에게 놀아나는 이가 대부분이야. 나중엔 놀아나는 줄도 몰라. 실패한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해. “사는 게 다 그렇지. 인간이 별 수 있어. 인생이란 게 말야, 살다보면 때론 이런 때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놈에게 빨려들면 안돼.

나는 POLICE

그놈을 잡기 위해선 말야,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해. 그야말로 행주좌와 어묵동정,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선 안돼.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때조차도. 아차 싶으면 늦은 거야.

나는 POLICE

이놈은 무엇으로든 변해 접근해 온다구. 소리, 모양, 혼침, 음식, 우리의 여러 욕망,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탈바꿈해 다가오지. 거의 대부분 우리는 눈치조차도 채지 못해. 변화의 화신이야. 이놈을 잡는 수많은 방법을 적어놓은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기록은 기록일 뿐이야. 우리가 직접 뛰어야 하거든. 순간 순간 멈추지 않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해.

나는 POLICE

하지만 나는 자신 있어. 이놈을 반드시 잡아 세상 모든 이에게 가르쳐 주겠어. 이놈을 잡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定慧社**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실



9월 30일 효봉스님 추모제



10월 9일 ~ 10일 전국강원연합 학인대회



10월 18일 수덕사 개산대제 및 대웅전 건립 700주년 기념법회



11월 15일 광주전남불교협의회 및 정법수호 결의대회



12월 4일 금강산림 대법회 회향



12월 10일 구산선사 추모제



12월 20일 새알 울력



2009년 1월 10일 ~ 11일 대교반 졸업여행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 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0년 전부터 송광사 강원에서는 매월 3째주 일요일에 순불청(순천불교청년회),
대불련(대학생불교연합)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순천, 구례지역 7가정, 12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 동안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성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후원자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in220@hanmail.net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1구좌 일만원 우체국 온라인 : 503490-01-001097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 810-02-120594 예금주 : 박채균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혜문스님 061)755-5302

「정혜사」가 막을 내립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 소식지로서 초심의 스님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엮어나가며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이제 그 「정혜사」가 여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사를 사랑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진하는 모습으로 송광사 강원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혜사」는 15년간을 이어가면서 순수한 열정으로 수행과 법을 전하는데 정성을 다했습니
다. 창간호부터 이번 38호에 이르기까지 땀흘리신 강원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38호에는
창간호부터 나온 훌륭한 글들을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 감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생 방부

※ 입방 구비서류 확인 (신입방부-치문반)

- 승적증명서 1통(수계증명서, 교육필증 각1부씩) 사본
 - 은사스님 추천서 1통, 건강진단서 1통
 - 방부비 50만원(반비는 별도), 사진 3매(사미의제를 단 장삼, 만의를 수하고 찍은 사진), 도장
- ※ 타종단(태고종)일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편입방부) - 신입방부자의 서류에다 전학증 첨가

※ 준비물

- 발우, 흰고무신 착용, 전자시계
- 이불끈(허리띠 정도길이의 끈 준비),
- 각각 장삼·적삼·동방의 사미의제의 길이는 5cm (교육원표준 길이)
(단, 누비는 사미의제 안해도 됨)

※날짜

〈1차 방부〉

- 3월 7일 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방부
- 3월 8일~11일 까지 습의기간 및 방부 대기
- 3월 11일 1차 방부자 큰방 입방

〈2차 방부〉

- 3월 15일 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방부
- 3월 16일~19일 까지 습의기간 및 방부 대기
- 3월 19일 2차 방부자 큰방 입방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유나스님, 선원선덕 범종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스님, 원효사 주지스님, 증심사 주지스님, 선원 여일스님, 길상사 주지스님, 운주사 주지스님, 만경사 주지스님, 원각사 주지스님, 불일암, 금강원 일행스님, 데코CNS대표이현도, 최창록, 이순득, 박인애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현문스님, 유나스님, 범종스님, 단제스님, 강주스님, 보리스님, 도산스님, 원주스님, 학감스님, 해청스님, 유마사 주지스님, 견해스님 반연, 정안스님 반연, 덕제스님 반연, 심법스님 반연, 두윤스님 반연, 유경희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천관사, 대휴사 오인완, 강승호, 김갑숙, 김선아, 김창환, 김현정, 양송이, 정순명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 중이 되고 더러운 꼴을 볼 때 인간같지 않은 인간을 볼 때 그 때 한 번 되돌려 무심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죄와 복이 공함을, 이 슬퍼 보이는 저기한 것이 그대로 진리이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까지 삭발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송장의 마인드가 아니라 깨어 있는 눈빛이라는 것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수행은 자유를 찾는 기쁨이자 슬픔에 단련되는 담금질이라. 간절하면 모든 것이 가이드가 되니 같이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자년 동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나는 버리기 위해 건너 왔으며
떠나기 위해 이곳에 머무릅니다.
중생과 돌아닌 그곳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사진·글 편집부 -

不二門



한 마음이 아니면 들어서지 못하는 문,
바람은 그저 지나가고,
이미 들어와 있기에 불입이라 말없이 문여는 당신.

-사진·글 편집부 <12호> -